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8월

교육학(음악교육)석사학위논문

Arts PROPEL을 적용한 중등교육의
오케스트라 지도계획 연구:
〈위풍당당 행진곡〉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손 지 희

Arts PROPEL을 적용한 중등교육의
오케스트라 지도계획 연구:
〈위풍당당 행진곡〉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rchestra Guidance Plan for Secondary
Education with Arts PROPEL:
Focused on 〈Pomp and Circumstance Marches〉

2018년 8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손 지 희

Arts PROPEL을 적용한 중등교육의
오케스트라 지도계획 연구:
〈위풍당당 행진곡〉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조 정 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손 지 희

손지희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재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효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정은 인

201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3. 선행연구의 고찰	3
II. 이론적 배경	5
1. 아트 프로펠의 정의와 개념	5
2. 아트 프로펠의 내용	6
1) 프로젝트 제로의 정의와 개념	6
2) 예술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 제로 접근법	8
3)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9
III. 아트 프로펠에서의 음악교육	10
1. 아트 프로펠 음악의 특징	10
2. 아트 프로펠 음악의 학습방법	12
3. 도메인 프로젝트	14
1)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	15
4. 아트 프로펠의 평가	17
1) 과제	17
2) 프로세스폴리오	17

3) 반성적 수단 18

IV. Art PROPEL을 적용한 중등교육의 오케스트라 지도 방안 19

1. 도메인 프로젝트 적용의 <위풍당당 행진곡> 19

 1) 도메인 프로젝트 진행방법 19

 2) 악기 집중학습 26

2. 오케스트라 합주를 위한 프로세스폴리오 개발 37

 1) 도메인 프로젝트 비평지 38

 2) 음악일지 50

 3) 질문지 53

3.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58

 1) 자료수집 58

 2) 분석절차 59

4. 오케스트라 합주수업에 대한 도메인 프로젝트의 적용결과 및 분석 60

V. 결론 66

참 고 문 헌 68

부 록 70

표 목 차

<표 1> 용어의 정의	5
<표 2> 프로젝트 제로의 초기 연구 방법	6
<표 3> 프로젝트 제로의 연구결과	7
<표 4> 평가기준을 위한 가정	10
<표 5> 아츠 프로펠의 학습과정을 위한 단계	11
<표 6> 도메인 프로젝트 교육영역의 특징과 내용	14
<표 7> 차시별 지도계획서	22
<표 8> 악기집중학습: 주제선율	26
<표 9> 악기집중학습: 조성 및 스케일 연습	27
<표 10> 악기집중학습: 도약음정	28
<표 11> 악기집중학습: 긴 음과 짧은 음 연습	29
<표 12> 바이올린 포지션 음역대	30
<표 13> 악기집중학습: 왼손운지연습	31
<표 14> 악기집중학습: 화음연습	32
<표 15> 악기집중학습: 오른손 활 연습	33
<표 16> 악기집중학습: 각활 연습 및 반복음 연습	34
<표 17> 악기집중학습: 악상연습	35
<표 18> 악기집중학습: 슬러와 스타카토	36
<표 19> 악기집중학습: 악센트 연습	37
<표 20> 개인연주 비평지	39
<표 21> 합주리허설 비평지	41
<표 22> 개인지도 비평지	43
<표 23> 합주리허설 비교지	45
<표 24> 합주감독 비평지1	47
<표 25> 합주감독 비평지2	48

<표 26> 개인지도 비평지	49
<표 27> 음악일지1	50
<표 28> 음악일지2	51
<표 29> 음악일지3	52
<표 30> 음악일지4	52
<표 31> 음악일지5	53
<표 32> 음악적 배경설문지	54
<표 33> 동료인터뷰1	55
<표 34> 동료인터뷰2	56
<표 35> 자기평가지	57

부 록 목 차

<부록 1> 음악적 배경설문지 ‘나의 음악을 소개합니다’	71
<부록 2> 동료인터뷰1 ‘내 친구는 어떤 음악가일까? 1’	72
<부록 3> 음악일지1 ‘나의 일지 속에 저장 1’	73
<부록 4> 음악일지2 ‘나의 일지 속에 저장 2’	74
<부록 5> 음악일지3 ‘나의 일지 속에 저장 3’	75
<부록 6> 음악일지4-1 ‘나의 일지 속에 저장 4’	76
<부록 7> 음악일지4-2 ‘나의 일지 속에 저장 4’	77
<부록 8> 음악일지5-1 ‘나의 일지 속에 저장 5’	78
<부록 9> 음악일지5-2 ‘나의 일지 속에 저장 5’	79
<부록 10> 개인연주 비평지1 ‘나의 연주에 대한 생각’	80
<부록 11> 개인연주 비평지2 ‘나의 연주에 대한 생각’	81
<부록 12> 합주리허설 비평지1 ‘내가 음악비평가라면?’	82
<부록 13> 합주리허설 비평지2 ‘내가 음악비평가라면?’	83
<부록 14> 합주리허설 비교지1 ‘어제와 오늘의 연주는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84
<부록 15> 합주리허설 비교지2 ‘어제와 오늘의 연주는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85
<부록 16> 개인지도 비평지1 ‘친구의 마스터클래스 노트’	86
<부록 17> 개인지도 비평지1 ‘친구의 마스터클래스 노트’	87
<부록 18> 자기평가지1 ‘아츠 프로펠을 통한 나와 악기의 변화’	88
<부록 19> 자기평가지2 ‘아츠 프로펠을 통한 나와 악기의 변화’	89

ABSTRACT

A Study on the Orchestra Guidance Plan for Secondary Education with Arts PROPEL: Focused on <Pomp and Circumstance Marches>

Son, Jihee

Advisor: Prof. Cho, Jungeun, Ph. 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music education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changing to foster talented individuals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hich reflects recent social changes, has focused on creative education and independent learning. In addition, in the five-year comprehensive plan for humanistic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student orchestra business has been settled as a sustainable business, not a one-off event. (Ministry of Education, 2016) Therefore, the issues often raised in the orchestra for students are the lack of systematic manuals and appropriate programs.

In the educational field,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cont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situation and student level.

Particularly in musical performance activity such as student orchestra, researching and understanding according to specific application methods and students' cognitive development ability are required. It is difficult to plan or execute a music lesson without this proces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the music curriculum,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and the achievement standards for the target students'

learning 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to apply Arts PROPEL's theory to actual class when teaching a student orchestra in a school. The Arts PROPEL theory, a cognitive approach to art education, consists of three stages of production, perception and reflection.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teaching method. For this purpose, we will look at the Arts PROPEL theory first and then see the applicable parts of orchestra performance. And I will suggest ways in which this theory can be applied to student orchestra classes. Based on this, i will analyze the records of student orchestra learning activit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after school orchestra classes of a middle school in Naju. The course of study will be divided into the domain project of Arts PROPEL and the actual course will be divided according to the project plan. The musical composition to be used in the guidance is Elgar's <Pomp and Circumstances Marches>. This study aims at the final concert through the course of each class.

The composition of the guidance contents is divided into teaching method, learning goal, performance domain project, process folio, and preparations by each class.

This paper is an orchestral guidance planning study based on Arts PROPEL theory to meet the purpose of this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음악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된 2015년 교과과정은 창의적인 교육, 자발적인 학습방법 등이 강조되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란 내용에 맞게 학교 음악 교육을 실현시켜야 하며 학교는 공통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교육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에서는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교육부, 2016).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가 운영되는 부분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점은 체계적인 매뉴얼과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적인 상황과 학생 수준에 따른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오케스트라와 같은 연주활동에서도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있어야 함으로 학생들의 인지발달능력에 따른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전 과정이 없는 음악수업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교육과정에 대한 성격과 목표, 수업내용체계 및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에 맞는 성취기준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의 목적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고자 아츠 프로펠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츠 프로펠 이론은 예술교육을 인지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이론이며, 음악학습능력과 인지발달과정을 통해 연구된 이론이다(Gardner, 1993). 이는 지각, 반성, 창작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오케스트라 지도과정 연구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역량의 차이나 환경의 차이로 인해 개정된 교과과정을 위한 실제적인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도 내용과 과정이 담겨있는 지도계획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백승란,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오케스트라를 지도함에 있어서 아츠 프로펠의 이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지도계획을 제안하고, 이 지도계획을 수업과정에서 얻어진 결과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아츠 프로펠의 이론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우리나라의 학생 오케스트라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오케스트라 참여 학생들이 기록한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나주에 소재하고 있는 B중학교 방과 후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 및 실습기간은 2018년 겨울캠프기간부터 봄 학기를 포함한 15차시 동안의 지도과정을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내용과 과정은 아츠 프로펠의 도메인 프로젝트의 과정을 적용하여 차시별로 나누어 실제 지도과정을 지도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며 지도에 사용될 악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으로서 차시별의 지도과정을 거쳐 최종 연주발표회를 목표로 정하여 진행하였다. 15차시의 지도내용 구성은 차시별로 교수·학습활동, 학습목표, 연주도메인 프로젝트, 프로세스폴리오 그리고 준비사항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차시별 교수 및 학습활동은 음악적 도입, 악기집중학습, 자기평가, 음악일지, 토론, 비평, 합주감독의 지도, 연주회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습목표와 연주도메인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개인연주, 합주 리허설 비평, 합주 리허설 비교, 개인 수업지도, 합주 감독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이나 준비사항을 실질적인 지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케스트라의 악기구성은 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과 관악(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지도과정의 연구 대상이 될 학생들의 개인연주 수준은 악기연주에 대한 기초과정을 마친 학생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다.

3. 선행연구의 고찰

본 논문의 연구에 앞서 학생 오케스트라 수업 운영을 위한 지도계획서를 위해 아츠 프로펠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된 관련 논문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최정인(2002)은 음악 교육이 제대로 학습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평가의 아츠 프로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츠 프로펠 이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이 청각 예술로써의 음악이 갖는 근본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시험지 속의 음악의 개념만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 개발시켜 왔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한주희(2004)는 중학교 합창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과정을 제시하였다. 인지심리학과 나선형 교육과정, 예술기호론, 다중지능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아츠 프로펠을 음악교육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인지적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음악 수업 과정 예시를 통해서 학생들은 실제적인 음악적 사고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학습들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서술하였다.

박주희(2012)는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아츠 프로펠은 학생들의 개인연주 기능과 음악적 표현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 실현 경험과 자아의식을 높일 수 있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세가 형성되어 주체적인 음악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윤가인(2016)은 보편적인 형태의 기술적 연습만이 아닌 음악성과 인성을 고루 기를 수 있는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한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며, 교사들 역시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학생들의 특성과 수업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연주능력 향상은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츠 프로펠 이론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한 관련 연구 논문들을 고찰하였다.

백승란(2008)은 아츠 프로펠의 연주 도메인프로젝트를 실제 교육현장인 중학교 기악합주수업에 적용하였다. 학습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연주 기량 향상을 볼 수 있었고, 자아 성찰의 태도를 갖고 비평지 작성 및 자기반성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 일방적인 태도보다는 학생과의 상호의사소통을 통해 수업의 질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집중도가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노현지, 최진호(2013)은 아츠 프로펠 이론을 학생들의 연주능력과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방과 후 기악교육 프로그램에 맞게 연구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하였다.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활동중심의 음악적 개념학습은 학생들의 연주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고, 교사 및 동료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발전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이나 협동심에 큰 영향을 주었고, 연주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아츠 프로펠에 대한 연구 논문들은 이론의 개념설명과 이 이론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실제 현장에 자발적인 학습과 반성의 과정을 추가하거나 지도자의 역할이 달라야 한다는 원리만을 적용하여 연주기량이나 성취감 등의 결과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실제 지도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력해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연주수업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주될 악곡을 위한 이론과 악보를 연결하여 구체적인 선행 학습의 지도계획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악기집중학습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악곡의 연습에 필요한 음악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오케스트라 지도과정 연구를 위한 이론으로 아츠 프로펠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개념화 하도록 아츠 프로펠 이론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고찰하였다.

1. 아츠 프로펠의 정의와 개념

아츠 프로펠은 예술교육 프로그램명으로써 논리학, 인식론, 미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심을 기울여온 철학자 벨슨 굿맨과 심리학적 근거가 되는 퍼킨스, 가드너의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교육방법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연구팀과 미국 교육평가 연구소, 피츠버그 공립학교에 의해 만들어졌다(Aaron, 1994).

아츠 프로펠 프로그램은 창작, 지각, 반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PROPEL’이라는 명칭은 이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즉 반성(reflection)과 창작(production)의 PRO의 글자와 지각(perception)의 PE를 연결하고, 학습(learning)의 L을 조합시켜 만들어 낸 명칭이다(Winner, 1991).

다음 <표 1>은 본 논문에서 주로 거론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다.

<표 1>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프로펠 (PROPEL)	창작(production), 지각(perception), 반성(reflection)을 조합한 약어로서, 이 세 가지 역량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예술학습을 나타내는 명칭이다(Gardner,1993).
창작 (Production)	이 이론에서 창작은 작곡이나 연주, 그리기, 상상적인 글쓰기 등을 포함한 총괄적 용어로서, 음악관련 수업에서는 작곡이나 연주, 작품 등에 해당된다.
프로세스폴리오 (Processfolio)	포트폴리오와 유사한 의미로서 하버드 프로젝트 연구팀과 가드너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이다. (중간 단계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 자료 및 작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프로세스폴리오라고 지칭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2. 아츠 프로펠의 내용

1) 프로젝트 제로의 정의와 개념

프로젝트 제로는 1967년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철학자 넬슨 굤맨(Nelson Goodman)이 창립한 연구단체이다. 이 연구 단체는 예술교육의 심리학적 및 교육적 측면에 관심이 있는 주변의 연구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들의 주된 연구 분야는 심리학적 문제였으며, 주로 지각적 및 인지적 역량과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프로젝트 제로의 초기 연구방법은 굤맨이 피아제(Jean Piaget, 1970)의 이론연구를 통해 새롭게 고안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프로젝트 제로의 초기 연구 방법

단계	연구내용	연구자 및 발표년도
1	상징 활용 역량의 ‘자연적인’ 발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능력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 ¹⁾ 를 수행한다.	Gardner, 1982
2	초기 아동기에 다양한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경로를 관찰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 ²⁾ 를 수행한다.	Wolf and Gardner, 1981
3	두뇌가 손상된 상황(breakdown)에서 상징 활용 역량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탐구한다.	Gardner, 1975
		Kaplan and Gardner, 1989

Gardner(2007), 문용린, 유경재 공역, 서울: 웅진싱크빅, p.188에서 재인용

이 표에 정리한 프로젝트 제로의 초기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중요한 결과들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 1) 현 시점에서의 상태와 주변여건, 관련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 그 자료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아닌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 방법(전우택, 1999: 94-95)
-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상의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로서,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효과가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의 소비를 감수해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권상희, 2004).

<표 3> 프로젝트 제로의 연구결과

단계	연구결과	연구자 및 발표년도
1	<p>* 대부분의 영역에서 나이에 따른 발달이 관찰된다. (그러나 여러 예술영역에서 놀라운 역량을 보이는 어린 아이들도 아동 중기에 어느 정도의 퇴보를 겪는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p> <p>* 발달에 있어 불균형성, 또는 U자 모양의 발달 곡선은 지각과 관련된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예술적 산출 영역에서 두드러진다.</p>	Gardner & Winner, 1982
2	<p>* 취학 전 아동은 수행에서 일종의 결함을 보이지만 예술 영역에서만큼은 수많은 지식과 역량을 획득한다.</p> <p>* 언어의 습득처럼 이러한 과정은 부모나 교사의 명시적 지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p> <p>* 아동의 그림은 자생적인 학습과 발달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p>	Gardner, 1980
3	<p>*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지각이나 이해 능력은 산출 능력보다 먼저 발달한다.</p>	Winner 외, 1983
4	<p>* 고전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한가지 인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역량은 다른 영역에서의 능력수준을 예측해 준다. (그러나 영역 일반적인 공시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다중지능이론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p>	Gardner, 1983b; Winner 외, 1986
5	<p>* 이전 연구에 대해 신경심리학적 연구는 이의를 제기한 설명에 따르면 특정 피질영역은 특정한 인지적 기능을 담당하고, 아동 초기가 지나면 신경 체계가 인지 능력을 대리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가소성이 적어진다. (수 십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은 특히 아동기 이후에는 신경계에서 인지적 역량표현에 ‘가소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p>	Gardner, 1975, 1986a

Gardner(2007), 문용린, 유경재 공역, 서울: 웅진싱크빅, p.188에서 재인용

위와 같은 결과들은 프로젝트 제로에서 ‘제로’가 암시하듯이, 연구의 초기 단계의 결과이다. 다만 예술적인 발달이 복잡하고 다중적인 경로를 따른다는 사실을 확증하였으며 예술적 역량의 발달은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예술적인 발달과

관련한 주요 발견들을 통합하여 연구하는 노력은 중요하다(Davis, 2005; Gardner, 1973, 1990a, 1990b; Winner, 1982; Wolf & Gardner, 1980).

2) 예술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 제로 접근법

프로젝트 제로의 예술 교육은 “훈련-기반의 예술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였다. 프로젝트 제로 연구팀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Gardner, 1993).

첫째, 어린 연령일수록 제작 활동이 예술 형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예술 활동은 지각적, 역사적, 비판적 그리고 “유사-예술적”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예술 교육과정은 예술매체에서 생각하는 방법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예술 학습은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 토론, 성찰의 기회가 충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예술 분야에서는 순차적 교육과정 보다는 특정분야의 반복과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나선형적 측면에 뿌리를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습 평가는 예술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예술에서 포함된 특정한 기술이나 지능을 존중해야 한다. 일곱째, 예술적 학습에는 단지 한 집합의 기술이나 개념의 숙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들의 느낌뿐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도 마주하게 된다. 때문에 개인적인 성찰이 존중되어야 한다. 여덟째, 예술에 대한 중요한 취향이나 가치의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다. 아홉째, 예술 교육은 예술가, 교사, 행정가, 연구자, 학생들 스스로를 포함하는 협력적 사업으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 열째,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술형태의 학습일정은 하나의 분야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예술(음악, 미술, 기타 등)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노출 되어야 한다.

3)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아츠 프로펠의 이론은 프로젝트 제로의 연구와 통합되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으로 합쳐졌다(Gardner, 1982a).

가드너에 의해 정리된 다중지능이론은 주로 두 가지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하나는 인간의 인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신경생물학적 및 문화적으로 말이 되는 형태로 종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필 “지능검사”로 적절하게 측정될 수 있는 단일 지능에 관한 광범위한 신념과 대조되는 사고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드너는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간이 적어도 일곱 가지의 다른 형태의 ‘앎’ 혹은 ‘정보와 처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수 천 년에 걸쳐 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언어, 논리와 수학, 음악, 공간정보, 신체-운동감각정보, 사람에 관한 지식, 자신에 관한 지식 등을 다루는 지능의 형태들이 포함된다(Gardner, 1993).

가드너의 분석에 따르면, 예술 지능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형태의 지능이 하나의 예술적 목적으로 지향될 수 있다고 한다(Gardner, 1983a). 즉, 이러한 형태의 지식에 포함된 상징들은 심미학적 방식으로 결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만이 심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음악적 지능이 의사소통 시스템 처럼 심미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능을 심미적 혹은 비심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혹은 문화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III. 아츠 프로펠에서의 음악교육

1. 아츠 프로펠 음악의 특징

아츠 프로펠은 일반 음악수업 및 연주수업에서 학습 성취정도를 평가하고 연주 리허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이는 다음 <표 4>와 같은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Winner, 1992).

<표 4> 평가기준을 위한 가정

	내용
가정 1	음악 교육은 단지 특별한 재능을 가진 몇몇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학습이다.
가정 2	음악학습은 창작(Production), 지각(Perception), 반성(Reflection)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때 가장 성공적으로 발생한다.
가정 3	음악 수업에서는 전문 음악가의 기술과 목표를 모델로 사용해야 한다.
가정 4	학생과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평가는 발전의 단면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학습과 성취의 새로운 단계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Winner, 1992).

‘프로펠(PROPEL)’이 의미하는 창작, 지각, 반성의 세 가지 요소는 통합적으로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우선이 되는 ‘창작’은 학습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함시키는 단계로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곡을 창작하거나 악보를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감상 속에 그 영향력으로 만들어진 다른 형태의 작품으로 표현될 수 있다.

창작은 지각, 반성과 나눌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창작에 이어 인지를 위한 단계인 ‘지각’은 감각적 분별력을 말하며 음악을 듣고 구별하는 능력이다. 학습대상자는 ‘창작’을 위해 필요한 음악적 지식과 연주의 기술 습득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작품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예술적 사고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감상 및 평가 또한 직접적인 관계를 이룬다.

마지막 요소인 ‘반성’은 학습자가 자신과 타인의 작품을 보고 듣고 평가하며 학습자 스스로 반성하거나 동료학습자와의 비교에 의해 반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활동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무엇을 하는가, 왜 하고 있는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잘 수정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단계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 자신 및 전체의 연주에 대한 비평과 토론의 결과에 따른 향후의 연습전략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아츠 프로젝트의 학습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실습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은 준비단계, 진행단계, 반성단계, 적용단계의 4단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표 5> 아츠 프로젝트의 학습과정을 위한 단계

번호	단계	단계내용	실습내용
1	준비단계	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하는 단계	1. 교사와 학습자가 학습을 위한 개별적이거나 조별로 주제를 선정하기 2. 교사가 주제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사전 경험이나 이해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개념, 관련 학습내용에 관한 의문점, 주제에 대한 흥미 등을 파악하기 3.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2	진행단계	실행단계로써 제기된 질문 및 활동 과정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단계 중간 평가로 문제 해결의 단계	1. 준비단계에서 새롭게 생겨난 추가적인 질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사, 탐구, 표현 활동 등을 경험하기 2. 중간 평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및 조별로 주제해결에 대한 진행도와 방향에 대해 교사와 함께 재확인해 보는 시간 3. 프로세스폴리오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개선점을 토의하여 적절한 피드백 하기
3	반성단계	활동의 결과를 마무리하는 단계	1. 발표를 통해 평가하고 이 과정을 통해 문제점들을 제기하기 2. 프로세스폴리오 전시하기
4	적용단계	문제점을 개선하며 응용하는 단계로써 창의적인 음악으로 표현하는 단계	1. 학습자가 작가가 되어 새롭게 음악작품을 창작하기

첫째, 준비단계는 학습이 시작되기 전, 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하는 단계이다. 교사나 학습자는 학습을 위해 개별적이거나 조별로 주제를 선정하게 하고 일정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교수학습을 위한 사전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사전 경험이나 이해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개념, 관련 학습내용에 관한 의문점, 주제에 대한 흥미 등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진행단계에서는 첫 준비 단계의 과정 중에 새롭게 생겨난 추가적인 질문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즉, 다양한 조사, 탐구, 표현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실행하게 되는 중간 평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및 조별로 주제해결에 대한 진행도와 방향에 대해 교사가 함께 재확인해 보는 시간이다. 이 때, 프로세스폴리오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개선점을 토의한 후 적절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담당교사는 학습을 안내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조별 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좁히는 중간 역할을 맡게 된다. 셋째, 반성단계에서는 학습활동의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와 문제점 제기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의 ‘발표하기’는 문제해결의 단계로써 주제해결을 위한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프로세스폴리오를 전시하게 된다. 학습자는 이 단계에서 발표와 전시에 대한 감상을 일지에 기록 한다. 넷째, 적용단계는 문제 응용 단계로 학습자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점을 작품에 응용하면서 스스로가 작가가 되어 새롭게 음악작품을 창작하는 단계이다.

2. 아츠 프로펠 음악의 학습방법

기존의 전통적인 연주 지도방법에서의 교사는 직접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전문가였다. 예를 들어 연주를 위한 음악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교수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 스스로 파악하고 교사와 동료들 간의 토론 시 효과적인 학습이 발생된다.

이러한 아츠 프로펠의 학습방법은 교사를 ‘지시자’에서 ‘조력자’의 역할로 변환되게

하며 교수는 학생들 입장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의 예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식의 원천역할을 하게 된다. 교수는 학생들이 음악적 기술과 표현력이나 감상과 비평 능력 등을 기를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며, 평가부분에서는 신뢰와 타당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도 그들의 작품에 대한 비판력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습능력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도메인 프로젝트

도메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중요한 개념이나 문제에 도전하는 데 적합하도록 구성된 활동이다.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교육과정의 기본 단위이자, 일종의 목표가 된다(Winner, 1991). 이는 단계적으로 학생들이 예술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임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교사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교사는 도메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무엇이고, 학습에 대한 예측을 갖고 교육기간, 교육범위,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결과로 나누는 영역에 맞게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도메인 프로젝트를 교육의 영역별로 나누어 몇 가지의 특징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도메인 프로젝트 교육영역의 특징과 내용

번호	영역	특징	내용
1	교육기간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젝트	음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곡과 시창, 연주에 대한 비평 등에 대해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배운다.
2	교육범위	창작-지각-반성의 과정을 통합하는 프로젝트	음악을 실행하고 서로 평가하며 재점검 후 수정, 보완 되는 과정이 통합되어있다.
3	교육과정	과정을 중시한 교육	반성과 학습의 과정을 통합함으로써 결과 뿐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한다.
4	교육평가	폭넓고 상호적인 평가의 기회를 제공	1. 학생 본인과 동료, 부모, 동료 등 모두에게 평가의 기회가 주어진다. 2. 학생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5	교육결과	수정, 학습되고, 반복적으로 구조화	교사와 작품에 대해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과제를 진행하는 등 전체적으로 수업이 수정, 학습되고, 반복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첫째, 도메인 프로젝트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젝트이다. 둘째, 창작-지각-반성의 과정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이다. 셋째, 도메인 프로젝트는 반성과 학습의 과정을 통합함으로써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다룬다. 넷째, 도메인 프로젝트는 학생 자신과 동료, 교사, 부모, 모두에게 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과정을 포함한 프로세스 폴리오에는 본인 뿐 아니라 교사, 동료, 부모들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아츠 프로펠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주 타인에게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도 매우 교육적인 활동이다. 다섯째, 도메인 프로젝트는 작품에 관해 교사와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 전체에서 수정, 학습되고 반복적으로 구조화하게 된다(Winner, 1992).

1)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

연주 수업영역은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로써 개인연주(Individual Performance), 합주리허설 비평(Ensemble Rehearsal Critique), 합주리허설 비교(Ensemble Rehearsal Comparison), 합주리허설이나 개인지도(Ensemble Rehearsal Section or Individual Coaching), 합주감독(Directing the Ensemble)의 5단계로 진행된다(Winner, 1992).

(1) 개인연주(Individual Performance)

개인연주 도메인프로젝트는 연주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악기 연주에 대한 이해와 연주를 하면서 악보를 읽을 수 있는 테크닉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는 지각과 반성은 창작을 위한 발판이 되는데, 테크닉의 습득과 악보 읽는 능력, 음악의 특징의 이해는 오케스트라 합주를 위한 연습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신과 교사, 동료, 학부모로부터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도 평가가 모두 이루어진다.

(2) 합주 리허설 비평(Ensemble Rehearsal Critique)

합주음악에서 연주를 평가하고 연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평 기술을 개발하기 위

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동안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지각했는지 이야기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다. 예를 들면, 연주한 부분을 녹음한 후, 이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연주를 평가하고 음정과 리듬 같이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알아낸다. 이러한 기회를 갖으면서 글을 통하여 비평과 반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비평은 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되며, 다음 연습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3) 합주 리허설 비교(Ensemble Rehearsal Comparison)

합주 리허설 비교 도메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지난 차시의 연주와 오늘의 연주를 비교해보는 프로젝트이다. 학생들은 테이프에 녹음된 다른 연주를 비교하기 위해, 과거 연주의 음악적 특징을 기억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듣기 과제의 일부분인 이 프로젝트는 일반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연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연주의 변화를 비교하며 새로운 관점을 확립하게 된다.

(4) 합주 리허설이나 개인지도(Ensemble Rehearsal Section or Individual Coaching)

합주 리허설 프로젝트는 듣기, 반성, 연습하기와 같은 활동이 합주나 개인을 가르치는 활동으로 변형된 것을 일컫는다. 프로젝트에서 학생이 더 나은 능력을 발휘했다면, 이들에게는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리허설의 일부분을 듣고 합주, 파트별 또는 개인 연주자들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녹음된 다른 연주를 들으며 동료 비평의 결과를 기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주를 지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간다.

(5) 합주감독(Directing the Ensemble)

이 프로젝트에서는 리허설 후 학생들이 합주를 지도하도록 준비시킨다. 비평적 기술과 음악 리허설의 반성적 이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은 리허설 동안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선택된 학생들은 리허설 동안 단순한 경험은 물론, 연주회를 준비하고 합주의 원곡을 편곡하거나 작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허설 도중의 문제를 찾거나 해

결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 우리는 준비과정이나 반성적인 논의를 별도의 일지에 기록할 것을 권고한다.

4. 아츠 프로펠의 평가

아츠 프로펠의 평가도구는 주로 과제, 프로세스폴리오, 반성적 면접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과제

과제란 학생 스스로 수행해야 할 목표로서, 실제의 결과물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된 작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 연주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정된 악곡에 대한 느낌을 토론하고, 그 악곡에 대한 사전지식을 이해하고, 악기에 대한 기본 연주법 등을 조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과제는 현재까지 학습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게 되며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과제는 프로세스폴리오를 통하여 평가되는데 그 과정에 악보, 음악일지, 질문지, 비평지 등이 포함된다.

2) 프로세스폴리오

프로세스폴리오란 학생들의 작업을 담아 교육과정과 평가영역을 적절히 융합시킨 학습법으로서 포트폴리오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포트폴리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매우 우수한 작품들만 모아 놓은 작품집인 반면, 아츠 프로펠에서 포트폴리오는 마지막 완성뿐만 아니라 중간과정의 작품들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분된 용어로써 ‘프로세스폴리오’라고 칭한다(Gardner, 1993).

예를 들어, 프로세스폴리오에는 수업과정의 모든 자료와 작업에 영향을 주었던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 등 다양한 자료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연주회를 준비하는 음악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연주를 규칙적으로 녹음한 테이프와 연주에 대한 비

평지들이 포함되기도 하며, 일반 음악 수업의 상상적 글쓰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노트, 작품의 초안, 최종 작품 등이 포함된다.

아츠 프로펠의 중요한 단계인 반성(Reflection)에 있어서 프로세스폴리오는 가장 특징적인 측면인데, 아츠 프로펠에서는 학생들처럼 교사들도 학생들과의 수업내용과 발전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똑같은 프로세스폴리오를 사용한다. 교사는 선택한 프로세스폴리오를 가지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갖으며 그 시간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을 다양한 작업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었는지, 또한 교사가 학생 작업을 어떻게 비평했는지 등에 관해 설명하게 된다.

아츠 프로펠의 프로세스폴리오를 통한 평가는 결과적인 평가점수를 내기 위한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프로세스폴리오를 통한 평가는 교사와 학생 서로 간의 발전적인 토론의 쟁점이 되며, 완성된 작업의 과정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에 대한 반성이 되는 것이다. 프로세스폴리오의 장점은 장시간에 걸친 학생의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과제수행까지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3) 반성적 수단

학생들이 스스로 음악에 대한 생각이나 음악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반성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츠 프로펠 수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음악 수업 안에서 자신의 음악활동을 더욱 의식적으로 반성하게끔 유도하며 진행된다. 이에 아츠 프로펠 연구가들은 여러 내용의 질문지, 동료인터뷰나 비평지, 음악 일지 등을 사용한다. 이들은 교사들이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과 수단을 시도하라고 권장한다. 반성에 관련한 기록들은 도메인 프로젝트와 함께 프로세스폴리오의 중심을 이루며 평가에도 사용된다.

IV. Art PROPEL을 적용한 중등교육의 오케스트라 지도방안

본 논문은 아트 프로펠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를 중등교육의 오케스트라 지도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방법 연구이다. 이 학습방법 연구는 학습현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인지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구체적인 창작, 지각, 반성의 단계를 실제 학습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은 B중학교 방과 후 오케스트라 학생들이며, 이 연구 수업을 위해 Arts PROPEL: A Handbook for Music의 지침을 따라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의 설계 및 지도를 위한 학습과정 및 방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도메인 프로젝트 적용의 <위풍당당 행진곡>

1) 도메인 프로젝트의 진행방법

아트 프로펠 이론에 의한 오케스트라 지도를 위해 Arts PROPEL: A Handbook for Music의 지침을 따라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의 전개를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사전 방안으로 정리하여 진행하였다.

(1) 개인연주 도메인 프로젝트

각 개인에 따른 연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에서는 ‘개인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하였다. 이 단계는 악곡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계명읽기나 리듬 구분 등 악보 파악능력을 집중하여 기르게 하고, 연주할 곡의 악보에 대해 조성과 주제선율, 또는 특정 리듬 등을 분석하여 각 악기별로 필요한 연주기법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단계로 작곡배경 및 연주특징을 조사하여 음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전 지식을 통해 연주곡에 대한 음악적 특징을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각각 개인연습시간을 배정하여 연주기법

에 대한 연습방법을 스스로 연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음악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2) 합주 리허설비평 도메인 프로젝트

전체 연주의 향상을 위해 ‘합주 리허설비평 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비평기술을 발달시키고자 하였으며 각 파트, 전체연주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을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나타내는 음악용어를 사용하여 비평하여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용어 사용을 위해 음악적 이론 지도가 선행되었다. 또한 매 차시별로 파트별 혹은 전체의 연습을 녹화나 녹음을 통해 연습의 진행과정을 파악하여 반성과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인의 파트별 또는 전체연주를 감상하게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비평하도록 하였다.

(3) 합주 리허설비교 도메인 프로젝트

합주연주에 대한 연습의 향상 과정을 지각하도록 하기 위해 ‘합주 리허설비교 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하였다. 이 단계는 차시별로 나누어 지난 차시의 연주에서 강조된 내용을 기억하며 합주연주를 하도록 하고, 연주를 마친 후 지난 차시의 연주와 현 차시의 연주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대해 점검 및 반성을 하도록 하고, 합주 리허설 비교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보다 집중하여 연주하도록 하고 실제적인 연주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4) 개인지도 도메인 프로젝트

학생들이 교사의 역할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지도 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하였다. 전 단계의 도메인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된 연주, 비평, 반성의 기술을 중심으로 동일한 악기의 단원에 대한 연주를 비평하고 지도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음악가의 사고와 지도자의 경험을 갖도록 하였다. 이는 음악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작업이다.

(5) 합주감독 도메인 프로젝트

학생들로 하여금 감독자의 역할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합주감독 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 중 두 학생을 감독으로 선발하여 직접 전체 구성원들의 연습과 연습을 위한 지도계획을 만드는 과정까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6) 도메인 프로젝트의 실제적용

B중학교 오케스트라 합주수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프로젝트를 학생의 개인별 음악수준과 음악적 경험, 학교의 환경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차시별 지도 계획은 단계별 도메인 프로젝트의 순서에 상관 없이 연주 연습을 위한 학생들의 진행과정에 맞도록 순서를 조정하여 구성하였다.

(7) 곡의 선정

악곡의 선택은 학생들의 연주능력 및 오케스트라의 악기편성 등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익숙한 곡인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인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선정하였다.

(8) 학습과 평가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는 동안 매 차시마다 학습과 비평 및 평가가 함께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기평가, 파트별 구성원 평가 과정 등을 음악일지나 비평지 등의 프로세스폴리오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지도계획서는 앞서 정리하여 설명한 내용에 근거하여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차시별 지도계획은 <표 7>과 같다. 이 차시별 지도계획서는 총 15차시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표 7> 차시별 지도계획서

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목표	연주도메인 프로젝트	프로세스 폴리오	준비 사항
1	1. 아츠 프로펠의 개념을 소개하기 2. 학습자에 관한 배경 질문과 동료 간에 의사소통하기	1. 아츠 프로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단원간의 음악적 경험을 듣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질문지① : 개인의 음악적 배경 *동료인터뷰① : 동료 간에 기자가 되어 질문하기	유인물
2	1. 음악적 도입: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연주를 동영상으로 감상 한 후 음악적 분위기를 조별로 토론하기 2. 내용학습: 주제선율(13-20마디)을 파악하고 리듬치기 및 노래로 불러보기 3. 악기집중학습: 위풍당당 행진곡을 각 파트별로 나누어 전체 선율 연습하기	1.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에 대한 작곡배경을 말할 수 있다 2. 악기를 연주하는데 있어서 주제선율 및 리듬 등 중요한 점을 찾을 수 있다. 3. 개인별 파트악보를 연주 할 수 있다.	*1단계 개인연주	*작곡가에 대한 조사지 *음악일지: 음악 감상 후 토론내용과 개인 연습에 관한 내용	파트 악보
3	1. 내용학습: ㉠조성에 대한 학습과 악기별 음계 및 도약음정 연습하기 ㉡악곡에 관련된 음악용어 정리하기 2. 악기 집중학습: ㉠위풍당당 행진곡의 41~44마디(스케일)와 1~8마디(화음 구성음 도약) 연습하기 ㉡음정과 음색에 맞는 소리를 내기 위한 왼손운지연습(음역이동)과 오른손 활 쓰기 연습(각활과 슬러) 등 연주 기술 익히기	1. 악곡의 구성과 음악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2. 음악적 표현을 위한 올바른 연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1단계 개인연주	*음악용어 학습지 *음악일지: 구성과 음계, 도약음정에 관한 연습방법 연구하기 *개인지도 비평지 (교사)	음악 용어 사전

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목표	연주도메인 프로젝트	프로세스 폴리오	준비 사항
4	1. 내용학습: 음계와 음악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2. 악기집중학습: 악기별로 음악용어를 악곡에 적용하기 3. 자기평가: 연습과정에서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법 찾기	1. 반복되는 실수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음악용어를 이해하고 악보의 지시사항에 따라 구별하여 연주할 수 있다.	*1단계 개인연주	*개인연주 비평지 *음악일지: 악곡에 필요한 용어적용하기 *개인연습 녹음자료	음악 용어 사전 녹음기
5	1. 비평: ㉠지난 차시에 녹음한 개인 연주를 듣고 스스로 비평하기 ㉡같은 악기별 연습 및 서로 다른 악기간의 부분적 합주연습 후 동료 간에 비평하기 2. 악기집중학습: ㉠현악의 합주 시 음의 길이와 활 쓰기 주법을 통일시켜 연습하기 ㉡관악의 합주 시 긴 박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을 잘 조절하기	1.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알고, 개인연주와 부분적 합주에 대해 음악용어를 사용한 비평을 할 수 있다. 2. 위풍당당 행진곡의 악곡에 필요한 기호들을 설명할 수 있다. 3. 연주에서 리듬과 음길이에 대해 악기의 특징에 맞춰 연주할 수 있다.	*1단계 개인연주 *2단계 합주 리허설비평	*개인연주 비평지: 개인연주에 보완점 찾기	
6	1. 자기평가: 녹음한 음악이나 동영상을 악보와 연관하여 감상하고 실수한 부분 찾아내기 2. 악기집중학습: ㉠악상 및 빠르기 등 악보의 지시사항대로 표현하여 연주하기 ㉡다양한 스타카토주법의 차이점을 구별하여 연습하기 3. 토론: 합주를 마친 후 전체토론하기	1. 개인과 전체 연주 후 수정해야 할 내용을 찾아 개선점을 말할 수 있다.	*1단계 개인연주 *2단계 합주 리허설비평	*음악일지: 악상 및 빠르기, 스타카토 주법 등 *합주연주 비평지: 악기연주 모습 녹화 및 전체연주 소리 녹음 후 비평 *개인지도 비평지 (교사)	녹음기 캠코더 빔프로젝터

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목표	연주도메인 프로젝트	프로세스 폴리오	준비 사항
7	1. 비평: 개인연주 및 합주의 녹음 및 녹화 후 중간 점검과 동료 인터뷰하기 2. 토론: 오케스트라 합주활동에 대해 보완점을 구성원과 질문하고 대화하기	1. 오케스트라 합주활동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1단계 개인연주	*중간질문지 ② *동료인터뷰 ② *음악일지: 보완점	녹음기 캠코더 빔프로젝터
8	1. 악기집중학습: ①각 악기가 유니즌 선율로 된 57~64마디를 효과 있게 연습하기 ②관악기와 현악기의 동일한 선율에 대해 음정과 리듬이 잘 일치하도록 연습하기 2. 과정 기록: 각 악기별 연습과정을 녹음하기	1. 각 악기의 유니즌 선율을 일치하게 연주할 수 있다. 2. 악기 간에 동일한 리듬부분을 규칙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 3. 동일한 음이나 리듬을 관악기와 현악기의 특징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2단계 합주 리허설비평	*음악일지: 유니즌 연습 *합주리허설 비교지	전체 악보 녹음기
9	1. 비평: 학생들의 개인이나 합주연주를 지난 차시와 비교하여 비평 및 반성하기 2. 자기평가: 학생본인의 연주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점 찾기 3. 악기집중학습: ①악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②악곡연주 속도를 단계적으로 연습하기	1. 학생들의 개인연주 녹음과 합주녹화를 차시별로 나누어 감상한 후 자립적으로 향상의 정도를 비교설명할 수 있다. 2. 개인의 연주능력에 따라 합주 연습을 한 후 연주를 비평할 수 있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1단계 개인연주 *3단계 합주 리허설비교	*합주리허설 비교지 *음악일지: 악상, 속도	녹음기 빔프로젝터
10	1. 토론: 학생들이 악기별로 모여 서로의 연주를 듣고 조언 및 토론하기 2. 연주발표연습: 전체가 모여서 개인별 연주 발표회하기 3. 비평: 개인연주를 감상한 후 교사가 학생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평지에 작성하기	1. 학생들이 서로의 연주를 듣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2. 단원들 간에 연주를 듣고 상호 조언할 수 있다.	*4단계 합주리허설 *개인지도	*개인지도 비평지: 향상 정도 비교 *음악일지	

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목표	연주도메인 프로젝트	프로세스 폴리오	준비 사항
11	<p>1. 감독: 학생 중 선발된 합주감독이 합주 단원에게 주요 연습방법과 전체적인 계획을 지시하기</p> <p>2. 악기집중학습: 현악파트와 관악파트의 대표 학생을 선발하여 각 구성원별로 연습하기</p>	<p>1. 합주감독 및 파트별 대표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p> <p>2. 합주감독이나 파트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악곡을 연습하고 오케스트라 합주를 진행할 수 있다.</p>	*5단계 합주 감독	*합주감독 비평지 *음악일지	
12	<p>1. 자기평가: 연주회를 가상하여 리허설을 경험하고 개선점 점검하기</p> <p>2. 토론: 리허설 연습 후 합주감독과 지도교사의 상호소통 및 토론한 후 비평지에 기록하기</p>	<p>1. 합주리허설을 경험하고 보완점을 토론할 수 있다.</p> <p>2. 리허설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 자립적으로 개선방법을 찾을 수 있다.</p>	*4단계 합주리허설 *5단계 합주 감독	*합주감독 비평지 *음악일지	캠코더 빔프로젝트
13	<p>1. 자기평가: 최종 리허설 지도 및 각 파트별 연주 점검하기</p> <p>2. 토론: 합주감독은 지도교사와 연주 개선점 상의하기</p>	<p>1. 합주감독의 지시에 따라 최종 리허설을 연주한다.</p> <p>2. 리허설에 대한 연주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말할 수 있다.</p>	*5단계 합주 감독	*합주리허설 비평지	캠코더 빔프로젝트
14	연주발표회	1. 전교생에게 그동안 연습한 곡을 완성도 있게 연주할 수 있다.		*일지	
15	<p>1. 비평: 연주발표회에 대한 비평하기</p> <p>2. 자기평가: 아츠 프로젝트를 적용한 오케스트라 합주활동의 평가 및 반성하기</p>	1. 학생과 지도교사가 아츠 프로젝트를 적용한 15차시의 오케스트라 합주활동에 대하여 비평과 반성을 할 수 있다.		*자기평가지	

2) 악기 집중학습

(1) 주제선율

위풍당당 행진곡의 주제선율은 <표 8>과 같이 제13마디부터 제20마디에 처음 제시된다. 이 주제선율은 모든 파트가 유니슨으로 연습하도록 한다. 주제선율의 배치는 바이올린과 호른이 처음 주제선율을 연주하고 이어서 제21마디부터 플루트가 추가되며, 제27마디에서는 오보에까지 추가된다. 그리고 제33마디에도 클라리넷과 트럼펫이 주제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주제선율을 연주하는 부분은 위치가 다르더라도 학생들은 동일한 주제선율을 연주하게 된다. 또한 본인이 연주하는 악기가 연주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주제를 보조하는 음을 연주하려면 주제선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8> 악기집중학습: 주제선율

주 제 선 율	(바이올린) 마디13-20
	(호른) 마디13-20

(2) 조성 및 스케일

악곡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음악이론의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악기를 연주 할 때에는 운지법에 적용될 직접적인 음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표의 이해와

조표를 반영한 스케일연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표의 이해는 올림표를 사용한 조표와 내림표를 사용한 조표로 나누어 설명하고 전조가 일어나는 부분의 연습을 위하여 임시표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리고 장조와 단조의 차이를 구분하는 연습도 병행한다. 이 악곡의 조성의 시작은 D장조이다. 조성은 제 13마디에 G장조로 전조되었다가 제53마디에 원래의 조로 돌아온다. 따라서 악곡에 주로 나타나는 D장조와 G장조의 학습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조성의 이해는 스케일 연습과 병행하여 지도한다.

스케일은 악곡에 나타나는 조성의 순차적인 선율의 음계를 말하며, 실제 악곡에서는 D장조 스케일은 <표 9>와 같이 제 57마디에서 제60마디까지 오보에의 하행선율에 적용된다. 이외의 부분에도 플루트나 클라리넷, 트럼펫 등의 악기에 동일한 선율이 음역을 달리하여 나타난다. 또한 G장조 스케일은 <표 9>와 같이 제13마디에서 제16마디까지의 바이올린 하행선율에 적용된다. 이 G장조 스케일도 여러 다른 악기에 적용되어 나타난다. 스케일 연습은 하나의 방향만이 아니라 운지의 자리 익힘을 위하여 상행이나 하행의 방향으로 전환하며 진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9> 악기집중학습: 조성 및 스케일 연습

조성 및 스케일 (음계) 연습	D장조 스케일의 실제 악곡 적용:(오보에) 마디 57-60
	<p>D C# B A G F# E (D)</p>
	G장조 스케일의 실제 악곡의 적용: (바이올린) 마디13-16
	<p><i>p</i> G F# E D C B A (G)</p>

(3) 도약음정

도약음정이란 반복음이나 2도 음정을 제외한 3도 이상의 선율음정을 말한다. 또한 하나의 화음 구성음 내의 음으로 연결된 도약선율을 ‘아르페지오’라 하며, 아르페지오 음형은 화음을 반주하는 악기에 자주 나타난다. 도약음정 연습은 선율의 방향이 상행과 하행이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경우와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두 가지의 경우를 연습한다.

선율적인 도약음정의 실제 악곡의 적용은 <표 10>과 같이 제3마디와 제4마디의 바이올린 선율에 적용된다. 제3마디는 화음 구성음에 의한 3도 관계의 하행 도약음정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며 현악기의 경구, 왼손의 운지의 간격연습이 중요하다. 또한 제4마디는 장9도의 큰 상행도약 음정에 관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때의 큰 도약은 현악기의 경우 줄을 바꾸어 활의 위치를 잡는 연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화음 반주에 사용되는 실제 악곡의 적용은 제2마디와 제3마디의 더블베이스 반주음형이다. 제2마디 도약음정은 완전4도 음정이며 두 음을 반복하여 상행 또는 하행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때 병행되어야 할 연습은 개방현에서의 줄 바꿈 연습이다. 그리고 제 3마디의 도약음정은 장3도, 완전4도, 장6도의 도약음정연습이 필요한 부분으로써, 현악기의 왼손운지와 오른손의 줄 바꿈을 위한 활 쓰기 연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표 10> 악기집중학습: 도약음정

도약 음정	실제 악곡의 적용: (바이올린) 마디3-4
	
	실제 악곡의 적용: (더블베이스) 마디2-3
	

(4) 긴 음과 짧은 음 연습

긴 음과 짧은 음 연습이란 빠르기와 박자에 따른 음표의 상대적인 음의 길이의 차이를 연습하는 것이다. 악기의 종류에 따라 연습하는 방법은 다르다. 예를 들어 관악기의 경우는 호흡의 조절연습과 텅잉 주법연습이 중요하며, 현악기의 경우에는 오른손의 활 쓰기 연습이 중요하다. 관악기의 경우는 긴 음 연습을 위해서 같은 악상의 소리로 길게 호흡을 조절해가며 롱톤(Long tone)연습을 선행하고, 짧은 음의 연습을 위해서 텅잉(tonguing)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현악기의 경우는 음의 길이에 따라 전체의 길이를 나누어 연주하게 되는데 긴 음가일수록 활 전체를 사용하여 넓은 범위로 사용하고 짧은 음가일수록 활의 범위를 좁혀간다. 지도를 위한 활 쓰기 연습단계는 온음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로 나누어 활의 분할연습을 한다. 온음표는 활 밑에서 시작하여 활 끝까지 사용하고 다시 반대로 활 끝에서부터 활 밑까지 연주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지도한다. 8분음표는 4분음표의 활의 범위를 2등분하여 사용하도록 활대 중간에 스티커나 테이프로 표기하여 활을 적당한 속도로 표기된 부분에서 다시 반대방향으로 연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실제 악곡의 적용은 <표 11>과 같이 제5마디의 바이올린 선율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4분음표의 음의 길이와 8분음표의 트레몰로에 의한 분할음 즉, 16분음표와 같은 음의 길이를 비교하며 연습한다.

<표 11> 악기집중학습: 긴 음과 짧은 음 연습

긴 음과 짧은 음 연습	실제 악곡의 적용: (바이올린) 마디5 
--------------------	--

(5) 운지연습

운지연습은 해당하는 음의 위치연습이며 관악기의 경우 양손가락의 운지법을 익히는 연습이고, 현악기의 경우 왼손 손가락의 지판을 짚는 간격연습과 줄 바꿈과 포지션 이동의 연습을 말한다.

관악기의 운지법에 의한 음의 위치는 운지법만이 아니라 호흡의 강약과 방향 등의

조절에 따라 바뀌는 차이를 익혀야 하며, 이러한 연습은 병행되어야 한다.

현악기의 운지법은 음의 위치에 대한 왼손연습이 중요하며, 오른손에서 먼저 기본적인 개방현 상태의 음 차이를 익힌 후, 왼손 손가락의 간격에 따른 음의 이동연습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준별로 맞는 음역의 이동을 위해 <표 12>와 같은 다양한 포지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2> 바이올린 포지션 음역대

포지션	음역대
제1포지션	G3 ~ B5
제2포지션	B3 ~ C6
제3포지션	C4 ~ D6
제4포지션	D4 ~ E6
제5포지션	E4 ~ F6
제6포지션	F4 ~ G6
제7포지션	G4 ~ A6

이러한 포지션 연습은 넓은 음역을 가진 악곡을 연주하는데 필요한 연습이다. 포지션에 관한 실제악곡의 적용은 <표 13>과 같이 제46마디에서 제48마디까지의 바이올린 선율에 적용된다. 특히 제47마디의 포지션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연주 될 수 있는데, C5음의 시작의 경우와 C6음의 시작의 경우로 나뉜다.

<표 13> 악기집중학습: 왼손운지연습

왼손 운지 연습: 음역 이동 연습	실제 악곡의 적용: (바이올린) 마디46-48 
	실제 악곡의 적용: (바이올린) 마디56-57 

첫 번째 경우인 C5음의 시작은 제1포지션으로 가능하며, 두 번째 경우인 C6음의 시작은 제3포지션으로 가능하다. 또한 제56마디와 제57마디의 바이올린 선율의 경우에도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연주될 수 있는데, A5음의 시작의 경우와 A6음의 시작의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 경우인 A5음의 시작은 제1포지션으로 가능하며, 두 번째 경우인 A6음은 제3포지션으로 시작하여 제57마디의 첫 음인 D6음에서 제5포지션으로 이동하여 연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포지션에 대한 선택은 학습대상자의 난이도에 따라 판단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6) 화음 연습

화음 연습은 현악기의 경우에 필요하다. 현악기의 화음은 선율적인 화음 즉, 아르페지오와 동시에 소리 나는 화음이나 더블스탑(Double stop)주법의 화음이 있다. 이 단원에서는 동시에 소리 나는 화음에 관한 연주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실제 악곡에서는 개방현 관계의 화음연주와 파트를 나누어 각 음이 화음을 이루게 하는 연주를 적용하여 연습하도록 하며, 수준별에 따른 주법의 선택을 위해 추가적으로 더블스탑주법에 관한 운지와 활 쓰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실제 악곡에서는 <표 14>와 같이 제 81마디의 바이올린 부분은 D, A, F#음이 동시에 연주되는 부분으로써,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 연주 될 수 있다. 이 화음을 이루는 음들은 바이올린의 개방현에 해당하는 음이므로 이 세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주는 지판 가까이에서 줄 세 개를 깊이 눌러 한 번에 연주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동일한 바이올린 파트를 두 성부로 나누어 일부는 D음을 연주하고, 다른 나머지는 A음과 F#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한 연주자가 D음과 A, F#음을 연달아 연주하는 더블스탑 연주도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연주방법은 두음이 고르게 날 수 있도록 활 각도 두 현에 잘 맞추어 사용하여야 하며, 운지법 또한 동시에 깨끗한 음이 날 수 있도록 개방현을 잘 유지하며 운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81마디의 첼로파트 부분은 개방현 D를 포함하기 때문에 동시에 연주가 가능하며, 연주자의 수준에 따라 두 성부로 나누어 각 각 한음씩 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연주자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지도자가 선택하게 된다.

<표 14> 악기집중학습: 화음연습

화음 연습 (더블 스탑)	실제 악곡의 적용: (바이올린) 마디81 
	실제 악곡의 적용: (첼로) 마디81 

(7) 오른손 활 연습

오른손 활 연습은 현악기의 연주를 위한 설명으로써 여러 줄을 이동하며 연주할 때에 활 쓰기 연습은 좋은 소리를 내는 데에 중요한 연습이다. 이러한 활의 움직임의 연습을 위해서는 바이올린의 경우, 개방현 간의 이동연습으로써 G현과 D현, G현과 A현, G현과 E현의 이동연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완전5도 이상의 음정은 하나의 줄에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악기의 줄 간의 음정관계는 콘트라베이스를 제외하면, 각각 완전5도 관계이므로 5도 이상의 도약은 줄을 바꾸어 연주하면 용이하다.³⁾ 이

러한 완전5도 이상의 도약들은 아르페지오나 큰 도약을 유도하는 선율을 표현할 때 필수적으로 연습되어야 할 주법이다.

G현과 D현을 이동할 때는 음가에 맞추어 팔을 드는 각도를 올리고 내리도록 지도한다. 음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활을 현에서 떼지 않고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G현과A현을 이동할 때는 중간에 D현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활을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G현과E현을 이동할 때는 활을 현에서 떼고 연주하도록 한다. 그 대신 빠르게 이동하는 연습이 별도로 필요하다.

실제악곡에 적용하면 <표 15>와 같이 제79마디의 바이올린 부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박자의 F#과 A음은 E선에서 연주하게 되며, 세 번째 박자의 D음은 A선에서 연주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E선과 A선의 이현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제80마디는 세 번째 박자부터 이어지는 네 개의 8분음표 부분의 D음과 F음은 D선에서 연주하며, Bb 음과 D음은 A선에서 연주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D선에서 A선으로 이동하는 이현연습이 필요하다.

<표 15> 악기집중학습: 오른손 활 연습

오른손 활 연습: 줄 바꾸기 연습	실제 악곡의 적용: (바이올린) 마디79-80

(8) 각활 연습

각활 연습이란 각 음 마다 활의 방향을 올림 활(up-bow)과 내림 활(down-bow)로 바꾸어 가며 연주하는 연습을 말한다. 실제 악곡에 적용에서는 <표 16>에서의 제9마디와 제10마디의 반복음의 경우 각 활에 의한 연주로 반복음을 연주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활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활을 쓰는 위치를 중간부분에 위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또한 활의 연주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4분음표를 연주할 때와

3) 콘트라베이스의 줄 간격은 완전4도 관계이다.

분할리듬인 8분음표를 연주할 때의 활의 위치와 범위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6> 악기집중학습: 각활 연습 및 반복음 연습

각활 연습 및 반복음 연습	실제 악곡의 적용: (비올라) 마디9-10 
-------------------------	--

(9) 악상연습

악상연습은 음의 강약 표현을 조절하는 연습이다. 관악기의 경우에는 호흡의 세기로 조절하게 되며, 현악기의 경우에는 활사용의 강약이나 활이 속도, 활의 연주위치 등에 따라 악상의 차이를 조절한다.

실제 악곡에 있어서 여린 악상 연습을 <표 17>과 같이 제13마디와 제14마디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제1바이올린의 경우 2분음표의 *P* (여리게)의 악상은 활을 지판과 가깝게 위치하도록 하고, 활을 현에 약하게 얹어 연주하도록 한다. 또한 제2바이올린의 스타카토의 경우에는 활을 지판과 가깝게 위치하도록 하면서 활을 사용하는 범위를 좁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실제 악곡에서의 *f* (세게)의 악상에 대한 활 쓰기 방법은 제33마디와 제34마디의 제1바이올린과 첼로부분에서 적용하여 설명 하면, 이 부분에서는 활을 브릿지와 가깝게 위치하도록 하고, 활을 사용하는 범위를 넓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실제 악곡에서의 크레센도 연습은 제56마디와 제57마디부분에 적용되며, 이 부분에서는 여린 악상부터 센 악상까지 이어지는 연습으로써 단계적으로 연습된 방법을 적용하여 지도한다. 플루트의 경우에는 트릴을 동반한 4박의 크레센도이며 이 부분에서는 호흡의 분배가 매우 중요하다. 처음 여린 부분에서는 호흡을 아껴 연주를 시작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호흡의 세기를 강하게 한다. 이때 호흡의 조절이 좋지 않으면 음정이 떨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바이올린의 경우에는 크레센도에 대한 활 쓰기 방법

이 중요하게 되는데, 시작부분에서 활을 지관 쪽에 위치하여 점차 박자를 나누어 활의 강도를 조절하며 브릿지 쪽으로 이동하게 한다. 활을 사용하는 범위는 좁게 사용하다가 넓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팔의 움직임의 크기 변화를 연습시킨다.

<표 17> 악기집중학습: 악상연습

<p>여 린 악 상</p>	<p>실제 악곡의 적용: (바이올린1,2) 마디13-14</p> 
<p>악 상 연 습</p>	<p>실제 악곡의 적용: (바이올린1, 첼로) 마디33-34</p> 
<p>크 레 센 도</p>	<p>실제 악곡의 적용: (바이올린1, 플루트) 마디56-57</p> 

(10) 슬러와 스타카토

슬러와 스타카토 연습은 음의 끊어짐과 부드럽게 이어지는 연주의 차이 연습이다. 현악기에서의 슬러와 스타카토 연주연습은 활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왼손의 운지 위치만을 바꾸며 여러 음을 연주하는 슬러 주법연습과 활을 짧게 써서 음을 끊어 연주하는 스타카토 주법으로 대조를 이루는 연주 주법연습이다. 관악기의 경우 슬러와 스타카토연습의 차이는 텅잉의 방법을 달리하여 한 번의 텅잉과 호흡으로 여러 음을 운

지만을 이동시켜 연주하는 연습과 한 음 마다 짧게 텅잉하며 연주하는 차이를 대조시키는 연습이다.

실제 악곡에서는 <표 18>과 같이 제53마디에서 제55마디에 나타나는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스타카토와 슬러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세 개의 음의 스타카토와 세 개의 음의 슬러가 대조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으로써 관악기의 텅잉주법과 호흡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슬러의 끝 음 처리가 중요하므로 제54마디의 첫 음과 제55마디의 첫 음은 스타카토와 악센트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표 18> 악기집중학습: 슬러와 스타카토

슬러와 스타카토	실제 악곡의 적용: (플루트, 클라리넷) 마디53-55

(11) 악센트 연습

악센트 연습은 박자에서 주어지는 강약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보다 더 강하게 강조되거나 악박의 음에 강한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악센트 기호에 따른 연습이다. 현악기의 경우에는 활의 강약조절이나 활의 폭 사용범위를 조절하여 표현하며, 관악기의 경우에는 호흡의 약과 속도로 조절하여 표현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강한 음의 갑작스럽게 나게 되는 경우 음정의 흔들림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악곡의 적용에서는 <표 19>와 같이 플루트와 제1바이올린에 나타나는 첫째박과 둘째박의 악센트 표현이다. 플루트의 경우에는 텅잉을 따로 하나씩 나누어 연주하며 호흡의 양과 속도를 빠르게 하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바이올린의 경우에는 활의 방향을 내림활로 반복하여 연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활의 위치를 빠르게 원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표 19> 악기집중학습: 악센트 연습

악센트 연습	<p>실제 악곡의 적용: (플루트, 바이올린1) 마디1</p>
-----------	------------------------------------

2. 오케스트라 합주를 위한 프로세스폴리오⁴⁾의 개발

오케스트라 지도를 위한 도메인 프로젝트는 아츠 프로펠 이론의 기본 개념인 창작, 지각, 반성의 단계를 통합시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진행 방법의 계획은 각 프로젝트의 학습목표에 따라 내용과 방법에 알맞은 여러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의 내용을 기록하고 비평하는 과정을 정리한 프로세스폴리오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집을 위해 프로세스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실제 학습현장에 맞게 프로세스폴리오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프로세스폴리오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은 Arts PROPEL: A Handbook for Music의 지침을 참고하여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기본 단계인 창작, 지각, 반성의 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연구하게 하고 발전과정을 관찰하여 창의적인 질문이 구성원 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학습과정의 질을 향상 시키고 소통이 되는 진행을 위하여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켰다.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사전 지식을 위한 과제제시와 반성적 과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학생들의 작업에 직접 관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과정과 학생들의 오케스트라와 자신의 음악에 대한 관점, 태도 등이 기록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넷째, 학습목표의 설정에서부터 학습과정의 정리단계까

4) 일반적인 포트폴리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매우 우수한 작품들만 모아 놓은作品集인 반면, 아츠 프로펠에서의 포트폴리오는 마지막 완성뿐만 아니라 중간과정의 작품들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분된 용어으로써 ‘프로세스폴리오’라고 칭한다(Gardner, 1993).

지 모든 프로세스폴리오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 내용에 적합한 프로세스폴리오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이 학습과정이 기록된 프로세스폴리오를 통해 오케스트라 수업의 과정과 목표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폴리오의 개발방향에 근거하여 도메인 프로젝트의 비평지, 음악일지, 질문지, 동료인터뷰, 연주녹음 및 녹화 등 다양한 프로세스폴리오를 개발하였다.

1) 도메인 프로젝트 비평지

도메인 프로젝트는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시각의 ‘비평’과 이를 비교하고 수집하기 위한 ‘기록’이 중심이 된다. 차시마다의 학습내용과 연주하는 악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도메인 프로젝트에 적합한 비평지를 구안하였다. 비평지는 개인연주 비평지, 합주리허설 비평지, 개인지도 비평지, 합주리허설 비교지, 합주감독 비평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비평지와 그에 따른 설명은 다음 <표 20>, <표 21>, <표 22>, <표 23>, <표 24>, <표 25>, <표 26>과 같다.

개인연주 비평지는 개인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표 20>과 같이 ‘나의 연주에 대한 생각’의 제목으로 개인 연습과정이나 합주 시 개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비평지의 내용은 구체적인 마디 수를 자발적으로 정하여 연주 시 실수한 부분의 내용과,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의견 등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음악을 비평하는 관점을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텅깅, 연주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시각으로 비평을 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표 20> 개인연주 비평지

<개인연주 비평지> 개인연주 도메인 프로젝트			
<h3 style="margin: 0;">나의 연주에 대한 생각</h3>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p>*여러분의 개인 연습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는 점과 실수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느껴지시나요? 개인의 연주가 녹음된 것을 듣고 난 후 여러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이 과정은 개인연주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표에서의 ‘마디’는 연주한 부분 중 특히 잘한 부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의 마디수를 기입하세요.</p> <p>*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 기입 (예: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텅깅,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p>			
마디	바라보는 관점	나의 연주는 어떠했나요?	나의 연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이 <표 20>에서의 개인연주 비평지는 학생 스스로 연습과정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비평지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의 개인 연습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제시하고 “잘되는 점과 실수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느껴지시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연주가 녹음된 것을 듣고 난 후 여러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라는 지시문으로 연주된 음원과 영상자료의 모니터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보완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표에서의 ‘마디’는 연주한 부분 중 특히 잘한 부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의 마디수를 기입하세요.” 라고 안내하며 실제 악곡의 마디를 찾아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용어의 사용을 유도하기 하기위해 “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을 기입하도록 하며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텅킹,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기입하도록 음악용어를 직접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문장들은 음악용어에 낯선 학생들이 보다 더 구체적인 비평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위와 같이 <표 21>에서의 합주리허설 비평지는 학생이 속해 있는 각 파트의 연습과정을 개인입장에서 평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비평지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합주한 악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제시하고 “듣기 좋은 점과 실수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느껴지시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합주가 끝나면 (또는, 합주한 녹화나 녹음된 연주를 듣는 동안) 여러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을 적어봅시다.”라는 지시문으로 합주 음원과 영상자료의 모니터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파트별로 구체적인 보완의 방법을 토의할 수 있도록 “표에서의 ‘마디’는 연주한 부분 중 특히 잘한 부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의 마디수를 기입하세요.” 라고 안내하며 실제 악곡의 마디를 찾아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평과정에서 파트별로 음악용어의 사용하여 토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하기위해 “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텅킹,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기입하도록 음악용어를 직접 제시하였다.

개인지도 비평지는 개인지도 도메인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표 22>와 같이 ‘친구의 마스터 클래스 노트’라는 제목으로 연주자들이 상호 간에 조를 이루어 상대의 연주를 비평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는 학생이 교사의 역할을 경험하기 위한 마스터클래스 혹은 개인지도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22> 개인지도 비평지

<개인지도 비평지> 개인지도 도메인 프로젝트 <h3 style="margin: 0;">친구의 마스터 클래스 노트</h3>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p>*단원들의 개인 연습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는 점과 실수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느껴지시나요? 이 과정은 악기연주에서 고쳐져야 할 보완점을 학생들 간의 비평 및 조언 등을 통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개인연주와 비평능력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 기입 (예: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텅킹,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p>			
이름	바라보는 관점	친구의 연주는 어떠했나요?	친구의 연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이 <표 22>에서의 개인지도 비평지는 학생이 속해 있는 각 파트의 연습과정을 개인입장에서 평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비평지를 작성하기 전에 “단원들의 개인 연습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제시하고 “듣기 좋은 점과 실수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느껴지시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악기연주에서 고쳐져야 할 보완점을 학생들 간의 비평 및 조언 등을 통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개인연주와 비평능력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지시문으로 합주 음원과 영상 자료의 모니터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파트별로 구체적인 보완의 방법을 토의할 수 있도록 “표에서의 ‘마디’는 연주한 부분 중 특히 잘한 부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의 마디수를 기입하세요.”라고 안내하며 실제 악곡의 마디를 찾아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평과정에서 파트별로 음악용어의 사용하여 토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하기위해 “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을 기입하도록 하며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텅킹,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기입하도록 음악용어를 직접 제시하였다.

합주리허설 비교지는 합주리허설 비교 도메인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표 23>과 같이 ‘어제와 오늘의 연주는 얼마나 향상되었을까?’의 제목으로 지난 차시의 연주와 현 차시의 연주의 향상도를 비교 점검하여 반성하는 과정을 기록하게 하였다. 반성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연주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하고 음악적인 여러 시각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는 좋아진 점과 고쳐지지 않은 점으로 나누어 다음 차시에 주어지는 과제를 스스로 계획하게 하는 작업이다.

<표 23> 합주리허설 비교지

<합주리허설 비교지> -합주리허설 비교 도메인 프로젝트			
어제와 오늘의 연주는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연주와 현재의 연주의 연습과정의 향상도를 비교하며 점검 및 반성해 보는 작업입니다. 개인 및 단체의 연주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더 나은 연주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 연주단계를 감상한 후 비교되는 연주부분에 대한 생각을 기록해 봅시다.			
*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 기입 (예: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텅킹,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			
바라보는 관점	좋아진 점		고쳐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표 23>에서의 합주리허설 비교지는 연주발표회 전 리허설을 임하면서 오케스트라의 전체 연주에 대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

문으로 구성되었다. 비평지를 작성하기 전에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연주와 현재의 연주의 연습과정의 향상도를 비교하며 점검 및 반성해 보는 작업입니다. 개인 및 단체의 연주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더 나은 연주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여러 연주단계를 감상한 후 비교되는 연주부분에 대한 생각을 기록해 봅시다.”라는 제안을 통해 합주 음원과 영상자료의 모니터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비평과정에서 음악용어의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하기위해 “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을 기입하도록 하며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텅킹,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기입하도록 제시하였다.

합주감독 비평지는 합주감독 도메인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표 24>와 <표 25>와 같이 연습과정에 대한 합주감독 비평지인 ‘합주감독이 되어서1’와 연주회 전 리허설 합주감독 비평지인 ‘합주감독이 되어서2’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였다. 합주감독은 악기군 별로 현악기와 관악기의 대표학생을 선정하여 합주감독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연습과정에 대한 합주 감독은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각 파트별 연습상황을 파악하여 기록하게 하였고, 둘째, 집중적으로 지도한 악곡의 구체적인 부분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였다. 셋째, 악곡에서 잘 표현하고 싶은 합주감독이 계획을 정리하게 하고, 넷째, 합주감독으로서 힘들었던 점을 되돌아보게 하여 보완점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였다.

<표 24> 합주감독 비평지1

<합주감독 비평지> 합주감독 도메인 프로젝트 <h2 style="margin: 0;">합주감독이 되어서 1</h2>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이번 프로젝트는, 합주감독의 임무를 맡은 대표학생을 통해 그동안의 연습과정을 점검 및 반성해 보는 작업입니다 연주발표회에 앞서, 합주감독으로서 연주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더 나은 연주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특별히 합주감독에게 주어진 역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래사항에 따라 준비과정이나 반성적인 부분을 기록합니다.			
*오케스트라의 합주감독(2인)으로서, 전체 연주에 대한 생각을 기록해 봅시다.			
합주감독으로서의 연주 점검		합주감독으로서의 비평 및 반성	
1 음악회에서 연주할 예정인 ‘엘가의 위풍당당행진곡’의 현재 각 파트별 연습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악: 관악:	

<표 25> 합주감독 비평지2

<합주감독 비평지> 합주감독 도메인 프로젝트 <h3 style="text-align: center;">합주감독이 되어서 2</h3>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이번 프로젝트는, 합주감독의 임무를 맡은 대표학생을 통해 그동안의 연습과정을 점검 및 반성해 보는 작업입니다 연주발표회에 앞서, 합주감독으로서 연주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더 나은 연주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특별히 합주감독에게 주어진 역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래사항에 따라 준비과정이나 반성적인 부분을 기록합니다 *오케스트라의 합주감독(2인)으로서, 전체 연주에 대한 생각을 기록해 봅시다			
합주감독으로서의 연주 점검		합주감독으로서의 비평 및 반성	
1 음악회에서 연주할 예정인 '엘가의 위풍당당행진곡'의 현재 각 파트별 연습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악: 관악:	

연주회 전 리허설 합주감독도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리허설의 파트별 연습상황을 비교하여 기록하게 하고, 둘째, 합주감독으로서 힘든 점에 대한 개선방법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였는가를 기록하게 하였다. 셋째, 연주회 실제 무대에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기록하게 하고 넷째, 오케스트라 전체를 이끌어 본 소감은 어떠했는지 기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대표학생들이 합주감독의 역할에 책임을 갖게 하며 비평과 반성적인 사고를 갖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비평지들은 전문적인 음악적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차시별로 해당하는 음악용어와 이론을 바탕으로 필요한 학습이 병행되었다. 또한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비평지 기록을 위해 음악적 지식을 동반한 기준을 <표 26>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연주능력과 음악일지 기록 및 토론능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 내용을 네 개의 평가단계로 나누어 점수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 이 판단 기준에 의한 점수기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향상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6> 개인지도 비평지

<개인지도 비평지> 개인연주 도메인 프로젝트 교사입장의 개인지도 평가 기록 (개인연주능력과 음악일지기록 및 토론 능력에 대한 평가)					
악기:	학년	반	이름:		
교사가 바라보는 평가 관점		날짜			
(*표의 1,2,3,4는 평가정도를 나타냄)		차시			
음정의 정확도	1- 정확한 음정이 거의 없다. 2- 때때로 정확한 음정이 있으나 대부분 실수가 많다. 3- 대부분 정확하고 안전한 음정이지만 가끔 실수가 있다. 4- 전체적으로 실수가 거의 없고 안정적인 음정을 연주한다.				
리듬/속도의 조절능력	1- 정확한 음가연주나 안정적인 템포는 거의 없다. 2- 때때로 정확하게 음가를 연주하지만 잦은 음가 실수가 있다. 3- 대부분 정확하고 안전한 리듬이지만 가끔 실수가 있다. 4- 안정적인 박과 리듬적으로 정확하다.				
악상의 표현능력	1- 악상에 나타난 악상 표현과 무관하게 연주 한다. 2- 때때로 악상을 지키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분명치 않다. 3- 대부분 악상기호를 정확하게 지키지만 가끔 실수가 있다. 4- 악보에 나타난 악상 표현을 잘 지켜 연주 한다.				

2) 음악일지

본 연구에서 진행된 음악일지는 ‘나의 일지 속에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섯 가지의 내용을 구분하여 차시별로 기록하게 하였다. 음악일지는 학생들이 기악합주 수업 중에 느낀 점이나 배운 점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른 내용은 다음 <표 27>, <표 28>, <표 29>, <표 30>, <표 31>과 같다.

<표 27>의 ‘나의 일지 속에 저장1’에서는 처음 기록하는 음악일지로서 합주하게 될 곡의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연주곡의 작곡자와 해당하는 음악의 시대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연습을 할 때 알게 된 점과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유도하였다. 악기 파트별로는 선율연습을 했을 때 새롭게 배운 점을 파악하게 하고 새롭게 알게 된 음악용어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습을 통해 느낀 점이나 다음 연습에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스스로 파악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표 27> 음악일지1

<음악일지>			
나의 일지 속에 저장 1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1. 합주하게 될 곡을 감상한 후의 느낌을 쓰세요.			
2. 위풍당당행진곡의 작곡자는 누구이며 어느 시대 작곡자 입니까?			
3. 개인 연습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에 대하여 쓰세요.			

중간의 음악일지는 <표 28>, <표 29>, <표 30>으로써 해당 차시에 개인연습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파트별 연습 시 새롭게 배운 점을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새로운 음악용어를 정리하게 하고 집중적으로 연습한 연주주법이 무엇이며, 다음 차시에 비교하여 연습하기 위한 녹음부분은 어디인지 기록하게 하였다. 합주 연습에 관한 내용으로는 어려웠던 점과 개선방법을 생각하게 하였으며 연습을 통해 느낀 점이나 스스로 보완할 방법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게 하였다.

<표 28> 음악일지2

<음악일지> 나의 일지 속에 저장 2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1. 개인 연습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에 대하여 쓰세요.			
2. 악기 파트별 연습 했을 때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3. 오늘 알게 된 음악용어는 무엇입니까?			

<표 29> 음악일지3

<음악일지> 나의 일지 속에 저장 3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1. 개인 연습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에 대하여 쓰세요.			
2. 악기 파트별 연습 했을 때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3. 지난 차시에 개인 연주를 녹음하여 듣고 난 후의 느낌과 보완점은 무엇입니까?			

<표 30> 음악일지4

<음악일지> 나의 일지 속에 저장 4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1. 개인 연습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에 대하여 쓰세요.			
2. 악기 파트별 연습 했을 때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3. 이 악곡을 연습할 때 어려운 부분은 몇 마디이며, 이 부분의 연습을 위한 개인의 아이디어를 쓰세요.			

<표 31>의 ‘나의 일지 속에 저장5’은 마지막 음악일지로서 음악회를 준비하는 마음, 리허설 후 느낀 점, 실제 연주회 당시 연주상태는 어떠했는지, 연주 후 소감 등을 기록하게 하였고, 전체적인 학교 내의 오케스트라 수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였다.

<표 31> 음악일지5

나의 일지 속에 저장 5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1. 음악회를 준비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2. 리허설을 했을 때 느낀 점을 쓰세요. 3. 실제 연주회를 했을 때의 나의 연주상태는 어떠했습니까?			

3) 질문지

질문지는 세 가지로 나누어 오케스트라 수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음악적 배경설문지와 동료인터뷰를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평가지를 기록하였다. 오케스트라 합주 도메인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진행된 세 개의 질문지는 각각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갖는다. 그에 따른 내용은 다음 <표 32>, <표 33>, <표 34>, <표 35>와 같다.

첫 번째 질문지인 음악적 배경설문지는 ‘나의 음악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개인적인 학생들의 음악적 배경이나 연주수업에 대한 목표 등을 알아보기 위해 <표 32>와 같이 기록하도록 제시하였다.

<표 32> 음악적 배경설문지

<음악적 배경설문지> 나의 음악을 소개합니다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자신의 음악적 경험이나 관심도 및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 및 학습의 시작단계에 필요한 질문입니다 연주하게 될 악곡을 감상하는 동안 아래 사항에 따라 적어봅시다.			
1.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현재 오케스트라에서 다루고 있는 악기를 배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 학교 밖에서 연주단체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4번으로)			
3-1. 활동했던 단체의 이름과 악기편성은 무엇이었습니까?			
3-2. 그 활동을 통하여 특별히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3-3. 그 활동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지인 동료인터뷰는 <표 33>, <표 34>와 같이 전체 과정 중 ‘내 친구는 어떤 음악가일까?’라는 제목으로 제1차시와 제7차시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제1차시의 동료인터뷰는 연주수업을 시작하는 단계로써 동료 학생의 음악적인 사전 배경과 관심 있는 음악장르 및 계획 등을 질문하도록 하였다. 제7차시에서는 연주곡에 대한 느낌과 구체적인 연주방법에 대한 내용 등 연주곡에 관련한 질문을 초점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기자의 입장을 경험하게 하여 동료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에서 질문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며 협동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표 33> 동료인터뷰1

<동료인터뷰1>			
내 친구는 어떤 음악가일까? 1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교사확인
<p>*여러분의 동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서로에 대해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수업이 끝나면(또는, 녹음된 연주를 듣는 동안)아래 사항에 따라 적어봅시다 서로의 연주향상에 도움이 되는 작업입니다.</p> <p>인터뷰할 오케스트라 단원 (악기:)</p> <p>1. 지금 오케스트라에서 다루고 있는 악기를 몇 년 정도 배웠습니까?</p> <p>2. 지금 다루고 있는 악기를 처음 배운 곳은 어디입니까? (예: 학원, 개인레슨,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등)</p> <p>3. 지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있는 악기를 선택한 동기는 무엇입니까?</p>			

<표 34> 동료인터뷰2

<동료인터뷰2>							
<h2 style="margin: 0;">내 친구는 어떤 음악가일까? 2</h2>							
이름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right: 1px solid black;">학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right: 1px solid black;">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일</td> </tr> </table>	학년	반	년	월 일	악기	교사확인
학년	반						
년	월 일						
<p>*동료의 연습과정은 어떻습니까?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 및 학습의 중간단계에 필요한 질문입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보완점을 찾고 개선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풍당당행진곡의 느낌은 어땠나요? 2. 지금 말고 있는 악기에 대해서 위풍당당행진곡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내줘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3. 처음 모티브를 어떻게 연주했나요? 							

마지막 질문지인 자기평가지는 ‘아츠 프로펠을 통한 나와 악기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의 개인적 목표를 파악하고 학습내용에 대한 반응을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질문지는 그 동안 수집한 프로세스폴리오 자료를 살펴보고 오케스트라 합주 도메인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 35>와 같이 질문하였다.

<표 35> 자기평가지

<자기평가지>			
아츠 프로펠을 통한 나와 악기의 변화			
이름 :	학년 반	악기	
	년 월 일	교사확인	
1.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오케스트라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 예: 아르페지오 연주가 자연스러워졌다.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오케스트라 수업 후 변화	
음악적 지식			
개인연주			
합주 연주			
2. 그동안의 도메인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음악용어들은 무엇입니까?			
악기주법을 위한 용어 (트레몰로, 마르카토, 피차카토, 등)	악상을 위한 용어 (포르테, 피아노, 크레센도, 악센트 등)	합주를 위한 용어 (Tempo primo, Molto primo, Energico, Slower, poco allargando, rit 등)	

3.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란 객관화시킨 양적연구와 다르며 연구의 상황을 반영시킨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활동 상황을 관찰하고, 진행되는 학습내용을 분석하며 지도자와 학생간의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자료를 정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1) 자료수집

(1) 수업참여 및 관찰

오케스트라 합주수업에 아츠 프로펠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이 학습 현장의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 및 교사와 학생 등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 오케스트라 합주수업의 과정과 연주수업내용 및 수업 중의 활동과정을 관찰한 결과와 수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자료 수집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는 단계적인 관찰을 위해 15차시의 중학교 오케스트라 합주수업을 계획하여 지도하였고, 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내용을 관찰 및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각 프로젝트의 단계마다 학습현장의 사진과 연습과정을 녹음 및 비디오 녹화하여 연주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과정을 반복하여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자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찰과 과정분석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2) 내용분석

내용분석이란 연주수업의 과정과 연주수업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이나 연주방법 등의 내용을 작성한 결과물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아츠 프로펠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에

사용한 집중연습을 위한 악보 및 파트별 악보와 15차시에 이르는 차시별 활동내용을 기록한 음악일지의 내용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연습과정의 녹음 및 녹화와 각 대상을 달리하는 질문지, 개인연주 및 합주에 대한 비교지와 비평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결과물, 연주발표회 후의 자기평가지 등의 자료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3) 면담

오케스트라 합주수업을 위한 면담은 아츠 프로펠 이론의 주 내용인 창작, 지각, 반성을 기반으로 하여 전체적인 활동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 등의 결과에 대한 느낌이나 사고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과의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면담은 각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생각하게 된 각자의 의견, 개인적이거나 파트별의 창의적인 활동계획, 수업에 참여하는 연주자들의 관심분야, 각 파트별 학생들 간의 상호관계의 친밀도, 개인 연주나 합주에 대한 비평과 비평지 및 비교지 작성과정에 대한 생각 등 오케스트라 수업의 내적인 사항과 외적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형식을 벗어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수집하게 된 내용은 아츠 프로펠의 연주 도메인프로젝트를 오케스트라 합주수업에 적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2) 분석절차

분석절차는 학생들이 매 시간 작성한 기록지 및 기타 포트폴리오를 수거하여 주제별로 정리를 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아츠 프로펠의 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아츠 프로펠의 연주 도메인프로젝트에 맞는 주제로 분류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 창의적인 교사의 역할과 책임 등을 아츠 프로펠 수업의 과제에 맞게 분류하여 분석하고 서술하였다.

4. 오케스트라 합주수업에 대한 도메인 프로젝트의 적용결과 및 분석

아츠 프로펠의 연주 도메인프로젝트는 연주수업에 임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영역에 잘 적용되도록 진행되었다. 개인연주 및 파트별 연주, 합주실력의 향상과 음악 연주활동에 대한 관심도의 향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동기유발을 위한 영역이다.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도메인 프로젝트를 연주, 지각, 그리고 반성의 세 가지 활동으로 다시 세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이 중 ‘연주’는 가장 오케스트라 합주수업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본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연주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은 개인연주 미 합주를 위한 활동으로써 개인연습, 파트별 연습, 전체합주, 동료 간의 마스터클래스, 합주감독, 연주회 등에 참여하였으며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담당 교사의 개별적으로 상담 및 지도되었다. 아츠 프로펠의 수업의 악곡연습은 전체 연주곡 뿐 만 아니라 음계연습, 화음연습, 악기주법연습, 악상연습 등의 개인별 연습이 병행되어 실시되었으며,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악기연주법의 습득, 악상 및 빠르기 등의 음악적 표현, 구체적인 악보 읽는 법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기평가는 학생들이 스스로 보완될 점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고 실제 연주의 실력이 점차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연주 도메인프로젝트에서 음악용어를 사용한 학습은 비평의 기술 뿐 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연주 실력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악기 연습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음악적 관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의 연주를 평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이는 개인연주 및 합주에 대한 음악적 요소를 적용하는 데에 흥미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악곡의 구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연주를 하게 하는 아츠 프로펠 학습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비평지의 내용이다.

“악상, 음정, 리듬의 관점에서 트레몰로 부분에서 박자가 빨라지고 음정이 조금씩 갈라졌다. 또한 9~11마디에서 스타카토와 리타르단도를 잘하지 못하였다. 트레몰로 부분만 부분연습을 하고, 연주할 때 박자를 세가면서 빨라지지 않게 할 것이며, 9~11마디 또한 부분연습을 할 것이다.” (a학생, 9차시)

“선율을 고르게 하지 못해서 음 이탈이 자주 났다. 소리연습이나 텅잉연습을 하루에 30분씩 하겠다.”(b학생, 9차시)

“악상의 크레센도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야한다. 마지막에는 크게 잘 지켰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가 크레센도를 지켜 점점 크게 연주한다.” (c학생, 3차시)

“음정이 약간 불안정했다. 이 부분을 열심히 연습하고 손가락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d학생, 3차시)

“리듬이 미숙하고 속도가 느리거나 빨랐다.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악보를 보는 능력을 기르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표시해야겠다.” (e학생, 3차시)

학생들의 효과적인 합주연습의 방법으로 지난 차시에 녹음한 연주를 듣고 그 느낌과 보완점을 생각하게 하고 연주에서 표현해내야 하는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여 음악일지에 기록 하도록 하였다. 이후 본 차시의 연주와 비교하게 하여 연주 실력의 발달정도를 스스로 파악하게 유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연습이 더 필요한 마디를 선택하여 악보에 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습 방법을 스스로 제안하여 연습하게 하였다.

다음은 녹음한 연주를 듣고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이다.

“녹음을 했던 것을 들어봄으로써 부족한 점을 찾게 되고, 그 보완점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어 좋았다.”(f학생, 6차시)

“7마디의 박자는 어느 정도 맞지만 음정을 스타카토 하면서 정확히 내기가 어렵다. 스타카토를 없다고 생각한 후 음정을 연습한 뒤 음정이 잘 맞으면 그 때 스타카토 연습을 해야겠다.” (g학생, 6차시)

“80마디는 음은 맞지만 악센트를 넣어서 연주하지 않았다. 악보에 악센트 부분에 동그라미나 네모를 치는 등 표시를 해놔서 악보를 볼 때마다 악센트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h학생, 7차시)

“곡을 연주할 때 음정을 이상하게 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4포지션을 할 때 도, 레, 미음이 잘 안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보완점은 4포지션 음정잡기 연습과 크게 내도록 하는 것이다.” (i학생, 9차시)

“연주할 때는 몰랐는데, 연주를 녹음한 것을 들어보니까 중간 중간 음정이 완전 안 맞는다는 것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이랑 음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j학생, 9차시)

그리고 각 파트별로 구성원 간에 서로의 연주를 들어보고 마스터클래스 형식으로 상호 지도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타인의 제안을 통해 자신의 연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경험이 되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비평하고 토론하면서 음악적 용어를 사용한 비평능력이 향상되었다. 다음은 첼로를 연주하는 k 학생에 대하여 같은 파트의 동료들이 작성한 비평 내용이다.

“박자에 집중해서 보았는데, 연주는 안정적이었고, 연습을 더 하면 매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정이 좋고 자세 또한 좋았다.” (i학생, 10차시)

“리듬이 좋았다. 피치카토의 소리를 자신 있게 내면 좋을 것 같다.” (m학생, 10차시)

“음정과 박자를 집중해서 봤는데, 박자와 음정이 정확했다. 스타카토의 소리를 좀 더 크게 연습해 주면 좋을 것 같다.” (n학생, 10차시)

“리듬을 잘 지켜서 연주 했는데, 리듬을 타면서 박자에 맞춰서 연주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o학생, 10차시)

아츠 프로펠 수업이 기존 전형적인 수업과 다른 점은 비평하는 과정과 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오케스트라 합주 도메인프로젝트에서는 악기연주연습 뿐만 아니라 악곡을 사전에 이해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보다 더 나은 연주를 위한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한 음악적 제안 및 반성을 하는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적 사고를 발달시키고 반성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연주나 상호간의 연주에 대해 비평을 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고 보완하였다. 이러한 비평능력을 위해 음악용어의 학습을 병행하여 상대 연주자에 대한 전문적인 음악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오케스트라 합주 도메인프로젝트에서 비평작업을 실시하는 처음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듣고 평가해야 하는지를 어려워했다.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비평 내용이다.

“합주 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한명이 틀리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모두가 틀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p학생, 2차시)

“연습만이 살길이다. 악보를 잘 봐야한다.”(q학생, 2차시)

“녹음을 들어보고 못하는 부분을 알게 되고, 박자를 알게 되었다. 박자를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r학생, 3차시)

“활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어려웠고, 음정이 너무 낮아서 힘들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s학생, 5차시)

위와 같이 아츠 프로펠 수업의 시작단계에서는 비평에 대한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부정확하게 진술한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의 비평은 직접 보여 지는 실수 즉, 박자에

대한 언급 및 단순한 실수를 언급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으며 음악적인 보완사항이나 구체적인 연습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좀 더 학습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지각, 반성의 단계를 학습되게 하는 것은 주로 교사의 역할이 되었다. 또한 연주에 대한 제안 및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은 여러 차시를 통한 토론 및 비평의 경험을 토대로 반복적으로 교사가 안내를 해 주어야 하는 항목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의 토론이나 기록에 관찰자의 위치에서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으려는 방침을 세웠으나, 각 항목별로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는 데까지는 교사가 관련된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다음은 아츠 프로펠 수업의 중반기의 학생들이 작성한 비평내용이다.

“33~51마디는 멜로디 이니까 선율이 잘 들리도록 해야겠다. 나와 우리파트의 연주는 가끔 음정이 조금씩 틀리는 것 같았고 선율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음정을 틀리 않기 위해 음을 읽는 연습을 더하고 선율을 잘 들리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t학생, 11차시)

“처음보다 더 안정적으로 리듬을 연주 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곡의 리듬을 캐치해서 잘 소화했는데, 조금 더 연습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 음정도 처음 했을 때 하나도 안 맞게 하고 #이나 b을 안했는데 계속 연습하니까 정확하게 음을 맞춰서 연주가 됐다. 아무래도 음정이나 박자에만 신경 쓰다 보니깐 내가 놓쳤던 건 연주 자세였다. 연주할 때 플루트를 똑바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고쳐야겠다.” (u학생, 9차시)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연주나 합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녹음 및 녹화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차시와 현 차시의 연주를 비교하여 바로 기록하도록 권장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연주의 감상을 통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반성적 사고를 기르게 되었으며 이를 기록하고 및 보완점을 위한 연습전략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차시별로 녹화된 연주는 연주 자세와 전체적인 음악의 흐름을 파악하여 평가 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토론학습에 연결되어 반성적인 학습의 연장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소리를 작게 내고 묻혀가는 경향이 있었고, 활이 조금 틀리기도 했는데,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음을 정확하게 활 틀리는 횟수를 줄이면 바이올린파트의 연주가 좋아질 것 같다.”(v학생, 10차시)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은 같은 음악을 들어도 엄청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다음에 연주할 때는 음 하나하나 더 신경써가면서 연주해야겠다.”(w학생, 10차시)

“박자를 지켜서 부르고, 운지법을 더욱 정확히 하는 것이다. 연주하는 입장에선 맞게 들려도 듣는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느꼈고, 다음번엔 음정에 더 신경써서 연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x학생, 10차시)

학생들은 점차 음악용어를 편하게 사용하여 질문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자신의 연주와 전체적인 음악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아츠 프로펠 프로젝트가 차시별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지각 및 반성적 사고가 크게 변화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오케스트라를 지도함에 있어서 아츠 프로펠의 이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지도계획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주 수업의 지도방법으로 진행되는 중학교 오케스트라 합주 수업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보완할 수 있는 제안으로써 아츠 프로펠 이론을 적용한 학생 오케스트라 수업의 기존 연구들을 선행 연구하고 이에 보완점을 위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주제인 아츠 프로펠 이론을 오케스트라 합주수업에 적용해본 결과 다양한 학습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주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은 아츠 프로펠 수업의 악곡연습은 전체 연주곡 뿐만 아니라 음계연습, 악기주법연습, 악상연습 등의 악기집중학습이 병행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보완될 점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연습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실제 연주의 실력이 점차적으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에서 음악용어를 사용한 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악기 연습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음악적 관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였고, 학생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자발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의 연주를 평가하는 내용이 음악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개인연주 및 합주에 대한 음악적 요소를 적용하는 데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비평하는 과정과 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보다 더 나은 연주를 위한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한 음악적 제안 및 반성을 하는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인지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상대 연주자에 대한 전문적인 음악적 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연주나 상호간의 연주에 대해 비평을 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고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교사 또한 학생들의 비평지 및 비교지, 음악일지 등을 살펴보면서 수업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오케스트라 수업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는 여러 비평지들과 음악일지들,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특성과 수

업을 이해하는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연주능력의 변화와 비평지 및 음악일지의 서술내용들이 음악용어를 쓰고 구체적이며 뚜렷하게 변화는 모습을 보았고, 학생들 간의 상호지도 작용과 서로를 더 배려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기록에서 관찰자의 위치에서 있지만 그 해결방법을 찾는 데까지는 교사가 관련된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그에 따른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프로세스폴리오를 통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면 아트 프로펠 이론의 연주 도메인프로젝트는 창의적인 연주 학습과 효과적인 음악 인지능력향상 및 반성적 사고에 의한 상호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적용한 중학교 오케스트라 합주수업은 보다 자율적이며 능률적인 연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악기지도의 새로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1).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1 - 361호.
-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 - 74호.
- 교육부(201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서울: 교육부
- Gardner, H.(2007). 다중지능. 문용린, 유경재 공역, 서울: 웅진씽크빅
- Goodman, N.(1998). 예술과의 대화. 이은주 역, 서울: 학문사
- 노현지, 최진호(2013). 아츠프로펠을 적용한 방과 후 기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음악교육연구, Vol. 42, 105-126
- 문동미(2003). Arts PROPEL에 근거한 초등 음악 창작 활동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주희(2012). Arts PROPEL을 적용한 중학교 오케스트라 수업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숙자(2005). Arts PROPEL의 음악 평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승란(2007). Arts PROPEL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한 중학교 기악합주수업.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승윤희(2002). 음악교육의 심리학적 기반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Vol. 23, 145-147
- 윤가인(2016). 아츠프로펠(Arts PROPEL)을 적용한 중학교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미연(2011). 아츠프로펠의 연주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한 가창 학습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정인(2002). Art PROPEL의 이론과 실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선옥(2014). 아츠 프로펠의 이론을 적용한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도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정현(2007). Art PROPEL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한 리코더 합주 지도. 석

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Aaron, J.(1994). *Integrating Music with Core Subjects*. Music Educators Journal 80, 33-36.
- Campbell, B.(1997). *Variation on a Theme: How Teachers Interpret Multiple Intelligences*. Educational Leadership 55, 14-19.
- Campbell, L., Campbell, B., and Dickinson, D.(2003).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Multiple Intelligences*. Boston, MA: Allyn and Bacon.
- Fiona, B.(1994). *Values Inherent in Qualitative Assessment of Secondary Studio Art in North America: Advanced Placement, Arts PROPEL, and International Baccalaureate*. Studies in Art Education, Vol 35, No 4, 237-251.
- Gardner, H.(1989). *Zero-Based Arts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ARTS PROPEL*. Studies in Art Education, Vol 30, No 2 , 71-83.
- Gardner, H and Perkins, D.(1988). *Art, Mind & Education: Research from Project Zero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Gard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Y: Basic Books.
- Goodman, N.(1968). *Languages of Art*. Indianapolis, IN: Bobbs-Merrill.
- Winner, E. (Ed).(1991). *Arts PROPEL: An Introductory Handbook*. Cambridge, MA: Project Zero,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Winner, E.(1992). *Art PROPEL: An introductory handbook*. Harvard Project Zero and Educational Testing Service: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부 록

- <부록 1> 음악적 배경설문지 ‘나의 음악을 소개합니다’
- <부록 2> 동료인터뷰1 ‘내 친구는 어떤 음악가일까? 1’
- <부록 3> 음악일지1 ‘나의 일지 속에 저장 1’
- <부록 4> 음악일지2 ‘나의 일지 속에 저장 2’
- <부록 5> 음악일지3 ‘나의 일지 속에 저장 3’
- <부록 6> 음악일지4-1 ‘나의 일지 속에 저장 4’
- <부록 7> 음악일지4-2 ‘나의 일지 속에 저장 4’
- <부록 8> 음악일지5-1 ‘나의 일지 속에 저장 5’
- <부록 9> 음악일지5-2 ‘나의 일지 속에 저장 5’
- <부록 10> 개인연주 비평지1 ‘나의 연주에 대한 생각’
- <부록 11> 개인연주 비평지2 ‘나의 연주에 대한 생각’
- <부록 12> 합주리허설 비평지1 ‘내가 음악비평가라면?’
- <부록 13> 합주리허설 비평지2 ‘내가 음악비평가라면?’
- <부록 14> 합주리허설 비교지1 ‘어제와 오늘의 연주는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 <부록 15> 합주리허설 비교지2 ‘어제와 오늘의 연주는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 <부록 16> 개인지도 비평지1 ‘친구의 마스터클래스 노트’
- <부록 17> 개인지도 비평지1 ‘친구의 마스터클래스 노트’
- <부록 18> 자기평가지1 ‘아츠 프로펠을 통한 나와 악기의 변화’
- <부록 19> 자기평가지2 ‘아츠 프로펠을 통한 나와 악기의 변화’

<부록 1> 음악적 배경설문지 ‘나의 음악을 소개합니다’

<음악적 배경설문지> 나의 음악을 소개합니다			
이름 : 유동배	1학년 3반	악기	바이올린
2018년	1월 25일	교사확인	홍지리
<p>*자신의 음악적 경험이나 관심도 및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 및 학습의 시작단계에 필요한 질문입니다 연주하게 될 악곡을 감상하는 동안 아래 사항에 따라 적어봅시다</p> <p>1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5학년때 오케스트라를 해보는데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시작하게 되었다.</p> <p>2 현재 오케스트라에서 다루고 있는 악기를 배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년정도</p> <p>3 학교 밖에서 연주단체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4번으로) 3-1 활동했던 단체의 이름과 악기편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이올린, 빛가람트림오케스트라(빛가람)</p> <p>3-2 그 활동을 통하여 특별히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바이올린에 대해 좀 알게 되었다.</p> <p>3-3 그 활동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계속 모이던 것.</p> <p>4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클래식.</p> <p>5 좋아하는 음악가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브람스, 그분의 음악은 듣는게 좋았기 때문이다.</p> <p>6 앞으로 연주해 보고 싶은 연주곡이 있습니까? 헝그리 교가</p> <p>7 학교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 향상시키고 싶은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이올린을 더 잘 하게 되는 것</p>			

<부록 2> 동료인터뷰1 '내 친구는 어떤 음악가일까? 1'

<동료인터뷰1> 내 친구는 어떤 음악가일까? 1			
이름 : <u>홍지리</u>	학년 : <u>4 반</u>	악기 : <u> </u>	비고사항 : <u> </u>
2018 년 1 월 25 일		교사확인 : <u> </u>	<u>홍지리</u>
*여러분의 동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서로에 대해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수업이 끝나면(또는 녹음된 영주를 듣는 동안)아래 사항에 따라 적어봅시다. 서로의 연주향상에 도움이 되는 작업입니다.			
인터뷰할 오케스트라 단원 (악기: <u>첼로</u>) <u>김민하</u>			
1. 지금 오케스트라에서 다루고 있는 악기를 몇 년 정도 배웠습니까? <u>총합 10년정도 배우며 (단 1년정도)</u>			
2. 지금 다루고 있는 악기를 처음 배운 곳은 어디입니까? (예: 학원, 개인레슨,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등) <u>총합 10년전사이키어 학원배웠다.</u>			
3. 지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있는 악기를 선택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u>입학할 때 오케스트라 악기 있게 배우고 싶었. 처음에 선택하게 되었다.</u> <u>(첼로보다 피아노가 있었기때 개인적 흥미로 개인학 받게 되어서 서양 선율을 관악기보다 편하게 연주한다.)</u>			
4. 즐겨 감상하거나 연주하는 곡은 무엇입니까? <u>즐거 감상하는 곡은 가비첼 (비탈디)을 주로 듣고 연주하는곡은 '말할수 없는 비밀'의 피아노 버전과 피아노 악곡을 연주한다.</u>			
5. 연주할 수 있는 다른 악기는 무엇이며 즐겨 감상하거나 연주하는 곡은 무엇입니까? <u>피아노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으며 즐겨 감상하는 곡은 가비첼 (비탈디)은 듣거나 피아노의 곡은 듣는다.</u> <u>연주하는 곡은 '말할수 없는 비밀'중 자비로 베토 곡들과 악어처럼듣 곡을 연주한다.</u>			
6. 앞으로 꼭 연주해보고 싶은 곡은 무엇입니까? <u>말할수 없는 비밀 곡중 피아노 버전과 가비첼 곡이다.</u> <u>비탈디악곡</u>			


<부록 3> 음악일지1 '나의 일지 속에 저장 1'

나의 일지 속에 저장 1			
이름 : 김하늘	2학년 9반	악기	플루트
2018년 1월 26일		교사확인	송지희
<p>1. 한주하게 뭘 곡을 감상한 후의 느낌을 쓰세요. 뽀빠이 라는 곡인데 들어보니, 정말 재밌고 신나게 듣는 마음이 상상중인 느낌이다.</p> <p>2. 뽀빠이행진곡의 작곡자는 누구이며 어느 시대 작곡자입니까? 19세기 후기낭만작곡자 엘가 이다.</p> <p>3. 개인 연습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에 대하여 쓰세요 악보를 보고 연주할때 기를 보고 그에 맞게 P인 마디가 7인 세게 하듯이 플루트 smile 라는 것을 사뿐내워서 연주했다</p> <p>4. 악기 파트별로 선율연습을 했을 때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플루트 뽀빠이를 처음 연주할때 기를 안들려서 연주하느라 악상간에 맞지않게 막 했는데 새로 배운 기들을 사용하면 연주한다.</p> <p>5. 오늘 알게 된 음악용어는 무엇입니까? ㉠ simile 7세는 배웠다. ㉡ energico 7</p> <p>6. 이번 연습을 통하여 느낀 점이나 다음번 연습에 보완 할 점에 대하여 쓰세요. 더 악상기드를 신경써서 연주하면 될것같다. 내가 좋아하는 K-POP 노래만 듣지않고, 다양한 좋은 곡을 들어봐야겠다.</p>			
교사의견	감동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고, 새로 배운 뽀빠이 연습해야 할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다.		

<부록 4> 음악일지2 '나의 일지 속에 저장 2'

음악일지			
나의 일지 속에 저장 2			
이름 : 강민선	2 학년 4 반	악기	나이클린
2018 년 1 월 27 일		교사확인	홍지리
<p>1. 개인 연습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에 대하여 쓰세요.</p> <p>오케스트라는 하나의 몸체로 연주를 할 때는 아무래도 머리 외에 정형석역한 소리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밀도대를 잘 따라가진 못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개인연습을 통해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쓰게 되었고 내가 조금 마듯한 높은 음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습하여</p> <p>2. 악기 파트별 연습 했을 때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음악 수업을 보낼 수 있었다. 오케스트라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의 악기만 연주해서 나의 소리가 들릴 수 있었었는데 오케스트라를 통해 하나하나의 악기가 모두 중요하긴, 합쳐서 들리는 것은 하나의 밀도이지만 파트별 연습을 통해 사소한 음절 하나하나를 지우는</p> <p>3. 오늘 알게 된 음악용어는 무엇입니까? 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Molto Maestoso ↳ 더 정중하게</p> <p>4. 오늘 집중적으로 연습한 연주 부분이나 녹음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연주했을 때 마음 마트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p> <p>5. 이번 연습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다음번 연습에 보완 할 점에 대하여 쓰세요.</p> <p>연습을 많이 할수록 숙련은 향상되지만 내가 조금씩 놓치긴 있었던 부분들 에 대해서 다시한번 체크할 수 있었다. 마지막 앞으로 연습을 하여 나의 소리에 대해 집중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한 나의 악기 숙련도를 더욱 키울 것이다.</p>			
교사확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오케스트라에 대해 이해를 잘 하는 있고, 스스로 복안이 교사가 하는 정도 잘 이해하고 있다.		

<부록 5> 음악일지3 '나의 일지 속에 저장 3'

음악일지			
나의 일지 속에 저장 3			
이름 : 김재현	1 학년 5 반	악기	바이올린
2018년 1월 31일		교사확인	노지희
<p>1. 개인 연습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에 대하여 쓰세요.</p> <p>최근 연습할 때는 배가 약간 작나 손을 잘 지키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은 4마로 속가는 행!</p>			
<p>2. 악기 파트별 연습 했을 때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p> <p>한 악기 뿐 아니라 이 악기 한 악기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p>			
<p>3. 지난 차시에 개인 연주를 녹음하여 듣고 난 후의 느낌과 보완점은 무엇입니까?</p> <p>연습할 때는 좋았는데, 좋은 연주를 녹음한 것을 들어보니까 공간감 완전 안 맞는 다른 것을 느꼈고, 보완할 점은 공간감 공간감 다른 사람들이 음 맞춰기.</p>			
<p>4. 새롭게 배운 연주 주범은 무엇입니까?</p> <p>트레몰로 - 음 두꺼익 배기.  ← 이렇게 생김.</p>			
<p>5. 이번 연습을 통하여서 느낀 점이나 다음번 연습에 보완 할 점에 대하여 쓰세요.</p> <p>이번 연습을 통해서 연주하는 사람과 들은 사람은 좋은 음악은 듣는도 같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다음연습에는 음하나나 더 친절히 4번씩 연주해야겠다.</p>			
교사의견	훌륭한 열의를 보여주면서 이노브본이 이서관지 조공석 이서관 지는 맛있게 보인다.		

<부록 6> 음악일지4-1 '나의 일지 속에 저장 4'

나의 일지 속에 저장 4			
이름 : 김하운	1학년 1반	악기	플루트
2018년 3월 19일		교사명	송지희
<p>1. 개인 연습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에 대하여 쓰세요.</p> <p>개인 연습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높은 음과, 지밀레를 알 수 있었고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은 멜로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한 것 같다.</p>			
<p>2. 악기 파트별 연습했을 때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p> <p>악기 파트별 연습할 때 새롭게 배운 점은 시밀레라, <i>energico</i>의 뜻을 배울 수 있었다.</p>			
<p>3. 이 악곡을 연습할 때 어려운 부분은 몇 마디이며, 이 부분의 연습을 위한 개인의 아이디어를 쓰세요.</p> <p>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습할 때 어려운 부분은 기아디와 도돌이뛰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의 연습을 더 해야 된다.</p>			
<p>4. 합주연습을 했을 때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개선 방법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p> <p>합주연습할 때 내 악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으면 한 악기라도 들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어서 어려웠다. 개선 방법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p>			
<p>5. 이번 연습을 통하여서 느낀 점이나 다음번 연습에 보완 할 점에 대하여 쓰세요.</p> <p>이번 연습을 통해 좀 더 실력이 향상된 것 같다. / 다음번 연습할 때는 보완할 점은 음정에 정확도를 길러야 한다.</p>			
교사의견	<p>연습할 때나 휴식 때 목을 해킹하지 더 구체적으로 쓰는 요령 보이기, 송정이 이상한 것을 대개는 근대적 양을 보인다.</p>		

<부록 7> 음악일지4-2 '나의 일지 속에 저장 4'

나의 일지 속에 저장 4			
이름 : 홍지현	2 학년 1 반	악기	피아노
2019년 3월 29일		교사학연	송지리
<p>1. 개인 연습할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에 대하여 쓰세요. 박자를 세터 내 곡과 관련된 연습할 수 있는 편이다. 생생함이 귀뚜리 음은 음이달이 나지않게 집중적으로 연습하였다.</p>			
<p>2. 악기 파트별 연습 했을 때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첫 악보를 받고 연습할 때에는 과음이 전혀 되지않고 박자를 놓치지않고 힘있게 마스터할 연습하다보니 과음과 박자를 세터 특이점속 알게 되었다.</p>			
<p>3. 이 악곡을 연습할 때 어려운 부분은 몇 마디이며, 이 부분의 연습을 위한 <u>개인의</u> 아이디어를 쓰세요. 6마디 ~ 7마디 높은 음에서 음 음이달이 잔잔 잘 난다. 그래서 음은 아래서 부르면 음이달이 될 것 같다</p>			
<p>4. 합주연습을 했을 때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개선 방법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사람 트럼펫 등음의 소리가 큰 악기 피아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 많이 어려웠다 큰 소리가 들리더라도 리듬도 신경쓰지않고 내 연주에 집중할 수 있게 연습을 계속하는 것 같다.</p>			
<p>5. 이번 연습을 통하여서 느낀 점이나 다음번 연습에 보완 할 점에 대하여 쓰세요. 연습에 힘이 약하여 음이달이 많이 난다. 다음번에는 연습에 더욱 힘을 강하게 하여 음이달이 나지않도록 해야한다</p>			
교사의견	<p>합주연습 중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자세를 보이고, 리듬감이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것 같아 사뭇하게 있다.</p>		

<부록 8> 음악일지5-1 '나의 일지 속에 저장 5'

<음악일지> 나의 일지 속에 저장 5			
이름 : 문성운	1학년 2반	악기	바이올린
2018년 11월 12일		교사학연	돈 자리
1. 음악회를 준비하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너무 마음이 떨리고 긴장되지만 단련으로 즐거울 것 같고 기대가 됐다.			
2. 리허설을 했을 때 느낀 점을 쓰세요. 정말 연극회가 코앞이라는 느낌이 활 와서 정말 긴장 됐다.			
3. 실제 연주회를 했을 때의 나의 연주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연습 때 만큼 잘 해서 나름 만족스러웠다.			
4. 연주 후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계속 날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끝났다가 정말 클리닉 했지만 그 준비하면 남들의 죽음이 때론 아쉬웠다.			
5. 학교 오케스트라 수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느낀 점을 쓰세요. 복습할 것 없이 꼼꼼하게 이 가르려주신 선생님 덕분에 즐겁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교사의견	연주회가 많이 떨리고 긴장되었는데, 훌륭한 세팅 잘 기억해서 연주했다.		

<부록 9> 음악일지5-2 '나의 일지 속에 저장 5'

<음악일지> 나의 일지 속에 저장 5			
이름 : 박준혁	1 학년 2 반	악기	클라리넷
2018년 4월 12일		교사확인	홍지리
<p>1. 음악회를 준비하는 마음은 어떻게? 음악회를 연습하다보니 ^{창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음악회를 ^{하기} 할게 된다는 평소보다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p> <p>2. 리허설을 했을 때 느낀 점을 쓰세요. 악기 소리가 내 마음 대로 안돼서 더 긴장되지만 실제 연주회까지 대비하기라는 ^{연습} 것은 생각해보니 열심히 하게 되었다.</p> <p>3. 실제 연주를 했을 때의 나의 연주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음악감도 많이 하고 실수로 많이 했지만 평소 연습보다 더 흥분되고 소리로 크게 났다.</p> <p>4. 연주 후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연주가 끝난뒤 연주할때 너무 많이 떨어서 아쉬웠지만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나서 매우 보람차고 기쁘다.</p> <p>5. 학교 오케스트라 수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느낀 점을 쓰세요.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한 곡은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 연주회 때 실수가 조금 있었는데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p>			
교사의견	연습하는 동안 악기대기 잘해서 각 안팎면 것이 굉장히 좋게 다음 연주 때도 긴장하지 않고 잘 연주할 것 같다.		

<부록 10> 개인연주 비평지1 '나의 연주에 대한 생각'

<개인연주 비평지> 개인연주 도메인 기록표			
나의 연주에 대한 생각			
이름 : 박현림	1학년 1반	악기	바이올린
2018년 1월 31일		교사확인	최지리
*대러본의 개인 연습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점과 실수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느껴지시나요? 개인의 연주가 녹음된 것을 듣고 난 후 여러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이 과정은 개인연주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에서의 '마디'는 연주한 부분 중 특히 잘한 부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의 마디수를 기입하세요.			
*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 기입 (예: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템포,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			
마디	바라보는 관점	나의 연주는 어떠했나요?	나의 연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입니까?
80	리듬	미숙하고 속도가 느리거나 빨랐다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악보를 보는 능력을 기르고 선생님이 말하신 걸 열심히 복습한다
마디	바라보는 관점	내가 합주를 줄 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느껴졌나요?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나의 연주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입니까?
1	음정	다른 아이들과 소리가 다른 걸 보고 느끼었다	다른 화음과 속도를 맞춰서 지켜자 선생님들 잘 본다

<부록 11> 개인연주 비평지2 '나의 연주에 대한 생각'

<개인연주 비평지>
개인연주 도메인 교수책도

나의 연주에 대한 생각

이름 : 홍다정 / 학년 : 4반 / 악기 : 바이올린
 2018년 3월 19일 / 교사학인 : 홍지리

*여러분의 개인 연습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점과 실수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느껴지시나요? 개인과 연주가 녹음된 것을 듣고 난 후 여러 차례보는 관점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이 과정은 개인연주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에서의 '마디'는 연주한 부분 중 특히 잘한 부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의 마디수를 기입하세요.

*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 기입
(예: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템포,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

마디	바라보는 관점	나의 연주는 어떠했나요?	나의 연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입니까?
1~11	리듬 음정	2~3마디는 부절이 빠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3~4마디는 잘하고 5~7마디는 리듬과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2~3마디는 부절이 빠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3~4마디는 잘하고 5~7마디는 리듬과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마디	바라보는 관점	내가 합주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느껴졌나요?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나의 연주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입니까?
13~19	음정 리듬	5~6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7~8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9~10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11~12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13~14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15~16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17~18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19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5~6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7~8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9~10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11~12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13~14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15~16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17~18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19마디는 음정이 잘 맞지 않아요

<부록 12> 합주리허설 비평지1 '내가 음악비평가라면?'

<합주리허설 비평지> 합주 도어인 표도역도 내가 음악비평가라면?			
이름 : <u>한혜현</u>	<u>1</u> 학년 <u>1</u> 반	악기	<u>하이클린</u>
<u>2018</u> 년 <u>1</u> 월 <u>31</u> 일		교사학연	<u>문지리</u>
합주곡목: (위풍당당행진곡)			
*여러분이 직접 합주한 악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기 좋은 점과 실수하거나 보던되어야 할 점들이 느껴지시나요? 합주가 끝나면(또는, 합주한 녹화나 녹음된 연주를 듣는 동안) 미리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을 적어봅시다. 이 과정은 전체 연주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에서의 '마디'는 연주한 부분 중 특히 잘한 부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의 마디수를 기입하세요.			
*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 기입 (예: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템포,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			
마디	바라보는 관점	나와 우리 파트의 연주는 어떠했나요?	나와 우리파트의 연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입니까?
<u>57</u>	<u>음정</u>	<u>높음정들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다.</u>	<u>높음정 연방 많이 한다.</u>
<u>마디</u>	<u>바라보는 관점</u>	<u>오케스트라가 합주할 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느껴졌나요?</u>	<u>오케스트라의 합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인가?</u>
<u>11</u>	<u>악상</u>	<u>리타른단모를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다</u>	<u>재빨리 똑바로 보고 연주를 흥분히 하고 다른 악기 소리를 들린다.</u>

<부록 13> 합주리허설 비평지2 '내가 음악비평가라면?'

<합주리허설 비평지>
합주 리허설 프로젝트

내가 음악비평가라면?

이름 : 박현서	2학년 4반	악기	첼로
2018년 4월 5일		교사학연	조리표

합주곡목: (위풍당당 행진곡)

*여러분이 직접 합주한 악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기 좋은 점과 실수하거나 보였더라도 할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합주가 끝나면(또는, 합주한 녹화나 녹음된 연주를 듣는 동안) 여러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을 적어봅시다. 이 과정은 전체 연주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에서의 '마디'는 연주한 부분 중 특히 잘한 부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의 마디수를 기입하세요.

*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 기입
(예: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템포,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

마디	바라보는 관점	나와 우리 파트의 연주는 어떠했나요?	나와 우리파트의 연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입니까?
33 5 52 마디	멜로디가 너무 잘 들리도록 해야겠다.	나와 우리파트의 연주는 가끔 음정이 정확하지 않았고, 선율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음정은 틀리지 않기 위해 들리는 단음은 더 낮은 소리를 잘 들리는 이어지게 하거나 해서 좋은 음악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디	바라보는 관점	오케스트라가 합주할 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느껴졌나요?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인가?
1 5 12 마디	다들 악기 소리만 지휘를 하는 박자를 맞춰야겠다.	맨 처음에 박자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았다.	박자를 잘 맞추기 위해 지휘를 잘 보고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활필이든 서든 맞추었다면 좋겠다.

<부록 14> 합주리허설 비교지1 ‘어제와 오늘의 연주는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합주리허설 비교지>
 -합주리허설 비교 도메인 프로젝트

어제와 오늘의 연주는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이름 : <u>강현우</u>	2학년 9반	악기	<u>첼로</u>
2018년 3월 15일		교사확인	<u>노재비</u>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연주와 현재의 연주의 연습과정의 향상도를 비교하며 점검 및 반성해 보는 작업입니다. 개인 및 단체의 연주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더 나은 연주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 연주단계를 감상한 후 비교되는 연주부분에 대한 생각을 기록해 봅시다.
 *바라보는 관점 -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 기법 (예: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템포,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

바라보는 관점	좋아진 점	고치지 않은 점
리듬	처음보다 더 안정적으로 들었다. 4박자 현을 더한 악곡이 주어 리듬 깨지어서 잘 연주했다.	음의 명중하면 처음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
음정	처음했을 때 음정도 하나도 안맞고 피피고 살아 움직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연습하기가 정확하게 온 악곡이 연주된다.	가장악 #시나 b로 들었는데, 체크해두고 연습하면 잘 것이다.
악상 기법	악적 음정을 틀리지 않기 위해 기법에 안 걸림을 해서 악상 기법에 맞추어서 연주하는 것은 어렵다.	악상 기법을 보고 연습을 하지 않았. 이것도 잘 연습하면 연습해야겠다.
연주 자세	이목이도 음정이나 악자이면 신경쓰나 보나만 내가 놓칠 뻔한 연주 자세였다. 그것도 고쳐야겠다. 그리고 팔을 제대로 들기 시작했다.	악적은 피피고 연주할 때 팔을 툭마로 안드는 경우가 많이 고쳐야겠다.

<부록 15> 합주리허설 비교지2 ‘어제와 오늘의 연주는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합주리허설 비교지>
-합주리허설 비교 토매간 프로젝트

어제와 오늘의 연주는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이름 : 전수연	학년 반	악기	종류
2018년 3월 15일		교사학인	최지희

*어번 프로젝트는, 지난 연주와 현재의 연주의 연습과정의 향상도를 비교하여 점검 및 반성해 보는 작업입니다. 개인 및 단체의 연주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더 나은 연주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 연주단계를 감상한 후 비교되는 연주부분에 대한 생각을 기록해 봅시다.
*비교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 기입
(예: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템포,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

비교보는 관점	향어진 점	고쳐지지 않은 점
리듬	슬러의 엄정이 보다 부드럽게 된다 스타카토가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연주하고 심포가 있는 부분에서 확실해 선다	불점이 없는 부분에서 정박으로 연주하지 않고 불점으로 연주한다
음정	높은 음이 보다 정확하게 연주된다 조표나 임시표가 높은 음을 정확하게 연주한다	높은 음을 연주할 때 짙색색리가 난다 조표가 바뀌는 부분에서 정확한 음을 누르지 못한다.
선율	전체적연 음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흐리가 부드럽게 난다	갈무된 소리가 나는 부분도 없고, 악자나 조표를 잘못 연주할 때도 있다.
템핑	악선트가 있는 부분에서 템핑을 세게 한다	스타카토에서 템핑을 세게로 살리지 못한다

<부록 16> 개인지도 비평지1 '친구의 마스터클래스 노트'

<개인지도 비평지>
 개인지도 도매인 프로젝트

친구의 마스터클래스 노트

이름 : 김연주	1학년 2반	악기	첼로
2018년 3월 22일		교사확인	토지리

*단원들의 개인 연습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는 점과 실수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느껴지시나요? 이 과정은 악기연주에서 고쳐져야 할 보완점을 학생들 간의 비평 및 조언 등을 통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개인연주와 비평능력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 기입
 (예: 리듬, 선율, 음정, 보잉, 템포,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

이름	네라보는 관점	친구의 연주는 어땠나요?	친구의 연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예민	보잉에 집중해서 보았다.	안정적이었다.	연습을 더 하면 매우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정이 좀 지체만 좋았다.
김인경	음정이 좀 지켜 보았다.	소리가 청대하니 좋았다.	원래 힘사이에 부딪음이 있으면 완벽할 것 같다.
이람비	음정에 좀 지켜 보았다.	악기에 집중해서 잘 보는 것 같았다.	연습을 더 하면 음정이 좀 잡힐 것 같았다. 음정은 잘 잡힐 수 있다.
박하림	소리에 집중해 보았다.	소리를 다 크게 크게 잘 표현했다.	악 연주를 더 잘하는 데 피아노의 소리를 잘 살려볼 수 있어서 후에 잘 할 것 같다.

<부록 17> 개인지도 비평지2 '친구의 마스터클래스 노트'

<개인지도 비평지> 개인지도 도매연 프로젝트 친구의 마스터클래스 노트			
이름 : 박아름	학년 6 번	학기	차수
2018 년 3 월 22 일		교사학연	속 리촌1
*단원들의 개인 연습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는 점과 실수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느껴지시나요? 이 과정은 악기연주에서 고쳐져야 할 보완점을 학생들 간의 비평 및 조언 등을 통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개인연주와 비평능력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 음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및 관점의 기준 기입 (예: 리듬, 선율, 음정, 보컬, 템포, 연주 자세, 표현의 정확성, 악상 등)			
이름	바라보는 관점	친구의 연주는 어떠했나요?	친구의 연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예인	음정과 박자	박자랑 음정을 잘 하였다.	스타카토의 소리를 좀더 크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김안영	음정과 박자	현악기기와 리듬이 온았다.	음정을 좀더 정확하게 하면 좋겠다.
이담비	음정과 박자	분림, 소리가 컸고, 연주시태가 좋았다.	리듬의 박자를 좀더 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김연주	음정과 박자	소리가 크고, 박자도 온할 지켜주면 좋았다.	스타카토 좀더 잘하게 해주면 좋겠다.

<부록 18> 자기평가지1 '아츠 프로젝트를 통한 나와 악기의 변화'

<자기평가지>

아츠 프로젝트를 통한 나와 악기의 변화

이름: 김대성	2학년 4반	악기	바이올린
2019년 4월 19일		교사확인	손지희

1. 아츠 프로젝트를 적용한 오케스트라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 예: 아르페지오 연주가 자연스러워졌다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오케스트라 수업 후 변화
음악적 지식	coda를 몰랐다	coda를 배웠다
개인연주	음정이 매우 불안했다	음정이 안정도 안정되었다
합주 연주	박자가 맞지않았다	박자가 맞게 되었다

2. 그동안의 도대인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음악용어들은 무엇입니까?

악기주법을 위한 용어 (브레슬로, 마르카, 파자초, 등)	악상을 위한 용어 (포르테, 피아노, 크라센토, 마인도, 등)	합주를 위한 용어 (Tempo primo, Ritto primo, Esogico, Slow, poco allargando, rit. 등)
피리카토, 스타카토	포르테 시코, 스포칸도	coda, Allegro assai

3. 15차시동안 오케스트라합주를 아츠 프로젝트의 연주 도대인 프로젝트에 적용시켜 진행 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수업과 연습과정을 통해 느낀 점, 생각한 점, 아쉬운 점,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지각, 비평, 연주를 넣기)

처음엔 잘 모르는 곡을 받아 연주하기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연습하면서 실력이 눈에보이듯 느꼈다. 무곡을 연습했지만 동양에서 농곡만 연주하게 아쉬웠다.

<부록 19> 자기평가지2 ‘아츠 프로젝트를 통한 나와 악기의 변화’

<자기평가지>

아츠 프로젝트를 통한 나와 악기의 변화

이름 : 강민선	3학년 5반	악기	바이올린
	2018년 4월 19일	교사확인	조지희

1. 아츠 프로젝트를 적용한 오케스트라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 예: 아르베지오 연주가 자연스러워졌다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오케스트라 수업 후 변화
음악적 지식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었다	악보를 보면서 지식 많아짐
개인연주	3 or 4 포지션이 익숙함	조금 더 자신스러워지고 정형화됨
합주 연주	공간감 들려도 관함다고 생각	악기 하나하나의 선율이 들림

2. 그동안의 도메인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음악용어들은 무엇입니까?

악기주법을 위한 용어 (Crescendo, Diminuendo, Ritardando 등)	악상을 위한 용어 (모에레, 자우, 크레센도, 악센트 등)	합주를 위한 용어 (Tempo primo, Molto primo, Energico, Slower, poco allargando, rit. 등)
트레몰로	악센트	Tempo primo

3. 15차시동안 오케스트라합주를 아츠 프로젝트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에 적용시켜 진행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수업과 연습과정을 통해 느낀 점, 생각한 점, 아쉬운 점,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지각, 비정, 연주를 넣기)

처음 오케스트라를 할 때는 '나 하나쯤은 들려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멜로디에 몰여간다는 마음을 가졌었다.
 그런데 각자 시기를 투자하며 참여했던 캠프를 통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전체적인 멜로디만 들으면 잘 모르지만 악기 하나하나의 특징이 있고 그 선율은 각자의 많은 노력을 통해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다양한 음악을 합주해보고 싶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겠다.